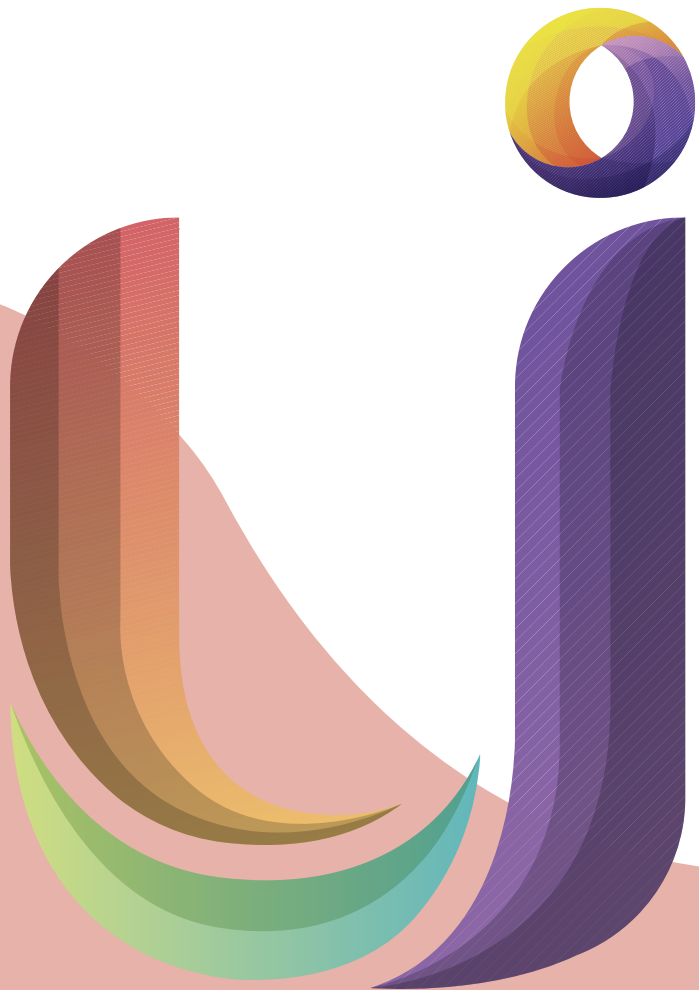


2026 Vol.28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 NEWSLETTER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CONTENTS

대학혁신지원사업 뉴스레터

2026 Vol.28

발행일 | 2026. 6. 30
발행인 | 이주열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
발행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50834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PRIME의생명공학관 106호
TEL. 055) 320-3215 FAX. 055) 320-3207
E-mail. uispc0624@gmail.com
www.uispc.org

인쇄 | 대양프린팅

기고문

- 04 AI혁명 시대,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을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윤경민
- 08 「라이즈(RISE)」의 「앵커(ANCHOR)」 전환에 따른 소규모 기독교 대학의 정부재정지원사업 대응 방향
한국성서대학교 전략기획실 실장 권경만

성과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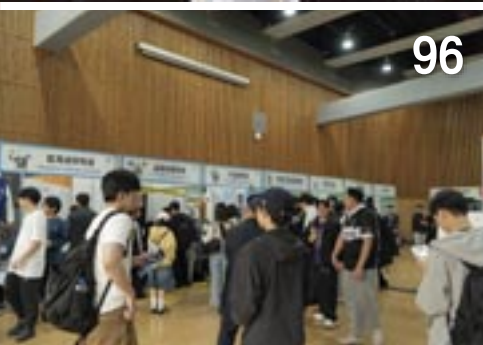
- 10 "기독교대, '100인의연결'로 학생 자원의 공백을 채우다"전공자율선택제 신입생 대상 '가대 후배사랑 100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부교수 백소연
- 14 디지털 학술 리터러시의 장을 열다
강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팀원 강경희
- 18 마음과 마음을 잇다, 「마음잇기」 현장 스케치
경일대학교 통합상담관리센터 전임연구원 박선미
- 22 2025 대학 특성화 연계 학과특성화 사업 추진 성과 '꿈을 노래로, 배움을 무대로'
나사렛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담당 정철
- 26 [DODU 멘토링] 함께 걷는 대학생 활, 서로의 성장을 잇다 - 멘토-멘티 상호 성장을 통한 공동체 문화 형성 -
대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전임연구원 민지현
- 28 삶과 배움의 이름, 학생 중심의 지속 가능한 학습 공동체 '사제동행 이름'
대구한의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연구원 정은지
- 32 스스로 완성하는 전공 로드맵, '모듈형교육과정'
대구한의대학교 노마드교육연구센터 팀원 김민지
- 36 전공을 고를 자유, 미래를 설계할 기회: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을 통한 학생 성장 기반 구축
대구한의대학교 노마드교육연구센터 행정직 전소라
- 40 학생이 만들고 함께 완성한 토론의 장, 2025학년도 <CUP 토론한마당>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전임연구원 조성구
- 44 나만의 AI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AI 진로 적성 진단'
부산가톨릭대학교 진로취창업지원센터 전임연구원 윤성범
- 46 "숙명여대 대학혁신단, '2026 숙명행복성장주간' 부스 개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혁신단 직원 김호정
- 50 생생형 AI 기반 학습공동체로 본 AI 융합교육의 가능성 - ChatGPT를 활용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교육적 의미를 중심으로 -
영남대학교 교육혁신센터 연구원 성용석
- 54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글로벌 교양 교과목 개발, 다양한 교양 교과목 지원
차의과학대학교 차오름교양대학 대리 김미선
- 58 도전으로 성장하는 대학, 창신대학교의 챌린지 교육 생태계 구축
창신대학교 교수학습혁신센터 센터장 윤지원
- 62 카리스교양대학, AI 시대 교양교육 방향 모색 위한 성과공유 포럼 개최
창신대학교 카리스교양대학/대학혁신지원사업단 연구원 강지은
- 66 SDGs 실현을 위한 대학생 해외봉사 운영 사례
충신대학교 지역사회봉사센터 센터장 김민선



18



41



96



108

- 70** 포항공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구성원 아이디어 기반 과제 고도화를 위한 실행 연계 및 부서협의 운영 사례
포항공과대학교 혁신사업단 대학혁신사업팀 연구원 이예원
- 72** 다전공 활성화를 위한 2026 KBU 진로박람회
한국성서대학교 혁신사업단 연구원 신군
- 76** 학업 회복을 넘어 LEARNING HIGH - 오늘은 나도 학사경고 탈출 장학금 프로그램-
한남대학교 교무교육혁신처 교수학습원격교육센터 담당 오승재
- 80** 장애인 이동권을 주제로 한 인권토론회 개최, 대학내 인권 담론의 장 마련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주임 장윤희
- 84** 교수-졸업생 현직자-재학생 멘토의삼각 연계 전공자율선택 지원 프로그램·한성대학교 '트라이앵글 전공트랙탐색담' 운영
한성대학교 자율전공설계지원센터 교육연구교수 강석남

학생사례

- 88** '나'다운 순간을 찾아서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아동청소년교육학과 학생 박승원
- 90** 인생을 아름답게, 원더풀 다이어리!
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 (행정공공기관학과) 학생 김예원
- 92** 소통에서 변화까지, 학생이 직접 만든 의견수렴 행사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학과 학생 김채이
- 96** 안경 너머로 바라본 전공 탐색의 의미 2026 JJ MAJOR FAIR: [전.탐.시] 전공 탐색 시간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공연예술학과 학생 신보민
- 100** 자유전공학부 RC공동체대학생활의 첫 연결고리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영화방송학과 학생 이주연

행사소식

- 104** [대학혁신] 2026학년도 자유전공학부 전공 탐색 박람회 F.L.O.W. (Flexible Learning & Options for the Way)
대구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담당 장윤희
- 108** "학생이 만들고 대학이 응답한 혁신, 학생 맞춤형 성장 체계 구축" 조선대학교 '2026 대학혁신 DAY' 성료
조선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혁신사업팀 팀원 서푸름
- 110** 한국성서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3기 학생 서포터즈 출범식 개최
한국성서대학교 혁신사업단 팀장 권순범
- 112** 학생 의견을 담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대학혁신지원사업 설명회 및 학생 의견수렴 공청회」개최
협성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혁신지원팀 팀장 이해진

서포터즈

- 114** 서포터즈 발대식
- 116** 2026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선발소감 및 각오

AI혁명 시대,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윤경민

을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AI혁명시대,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의 지형이 바뀌는 메가톤급 변화가 일어나는 지금, 교육계 역시 그 태풍의 눈 한복판에 서 있다.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수사는 이제 유물처럼 느껴질 정도다. 취업 전선에 내보낼 학생들에게 얼마나 실용적인 무기를 쥐여줄 것인가에 몰두하는 것이 오늘날 대학이 마주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대학의 목표가 오직 ‘성공적인 취업’에만 있다면, 우리는 굳이 대학이라는 공간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는가.

▮ 산업혁명이 바꾼 대학, AI가 던지는 새로운 과제

과거 유럽의 대학은 신학과 철학을 탐구하는 엘리트 교양의 전당이었다. 하지만 산업혁명은 대학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국가와 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핵심 역할로 재편된 것이다. 산업혁명은 대학을 ‘지식의 공동체’에서 ‘인적 자원의 공급처’로 변화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AI의 등장은 그때와 비슷하면서도 한 차원 더 깊은 고민을 안겨준다. 지식의 요약과 검색, 생성이 자동화되면서 대학이 가졌던 ‘지식 전달의 독점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이 대학에 ‘무엇을 더 가르칠 것인가’를 물었다면, AI는 이제 대학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존재 이유에 의문부호를 찍는다.

▮ 대학의 비명, 수치가 증명하는 위기

이 거대한 전환의 진통은 우리 대학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국내 대학 재학생은 약 16%가 증발했다. 사라진 33만 3천 명의 학생 수는 서울 소재 대형 대학 10여 곳의 전교생이 통째로 사라진 것과 맞먹는 규모다. 특히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과 통폐합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대구 지역 A대학교가 내년부터 사회학과를 비롯한 6개 학과의 모집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기초학문이 처한 고단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수도권 대학에서도 철학과나 어문계열학과가 문을 닫거나 정원 감축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단지 특정 학문의 인기가 시들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취업률이라는 잣대와 시장의 논리가 대학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서글픈 결과다.

▮▮ ‘취업 불패’의 배신과 계약학과와의 뺏

반면 AI와 반도체 등 이른바 ‘미래 유망 학과’는 활력이 넘친다. 기업이 채용을 보장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다. 하지만 이 현상에도 그늘은 있다. 2025년 취업 자료를 보면 서울대, KAIST 등 상위권 대학조차 컴퓨터 관련 학과의 취업률이 최근 2년 사이 10%p 안팎 하락했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대학의 커리큘럼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빨라진 탓이다. AI가 기초적인 코딩 업무를 대신하면서, 시장은 이제 단순히 기술을 익힌 신입보다 더 높은 수준의 통찰력을 요구한다.

산업 구조에 맞춰 학과를 신설하고 폐지하는 방식은 대학을 특정 기업의 인력 양성소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특정 산업에 인력이 과도하게 편중될 경우, 향후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 AI는 직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한다

AI가 일자리를 뺏어갈 것이라는 공포가 대학가에 짙게 깔려 있다. 하지만 핵심은 ‘직업의 실종’이 아니라 ‘업무의 재구성’이다. 정보 검색이나 기초 분석 같은 기능적인 작업은 AI의 몫이 되겠지만, 최종적인 판단과 윤리적 책임, 맥락의 해석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으로 남는다. 미래의 인재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기계와 어떻게 협업하며 그 결과물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의해 평가받는다.

▮▮ 대학 교육, 이제 ‘질문’의 가치에 집중할 때

변화 속에서 대학은 몇 가지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첫째, 학과 신설과 폐지의 반복에서 벗어나 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지식 전달보다는 판단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답을 찾아내는 일은 이미 기계가 평정했다. 우리는 그 답이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

셋째, 대학을 일회성 학위 공장이 아닌 평생교육의 플랫폼으로 개방해야 한다.

다시, 사람을 향하는 인문학의 힘

역설적이게도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무기는 인문학적 통찰이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답을 낼 수는 있지만, 무엇을 물어야 할지,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지는 알지 못한다. 철학은 질문의 전제를 살피는 법을 가르치고, 역사는 오늘을 과거와 미래의 맥락 속에서 보게 하며, 문학은 타인의 아픔을 상상하게 한다.

취업 논리에 밀려 인문·사회 계열을 구조조정 1순위로 두는 현실은 우려스럽다.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력이 거세된 교육은 결국 AI 시대의 주인이 아닌 피지배자를 양산할 뿐이다. AI가 정교해질수록 대학은 더 인간다워져야 한다.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감성적 소통과 깊이 있는 사유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다.

지금 대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산업의 요구에 충실한 '직업 훈련 기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주도할 '지혜로운 인간'을 키워낼 것인가. AI 시대의 대학 교육은 단순히 더 똑똑한 기계를 다루는 법이 아니라, 기계가 가질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지는 일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라이즈(RISE)」의 「앵커(ANCHOR)」 전환에 따른 소규모 기독교 대학의 정부재정지원사업 대응 방향



권경만

한국성서대학교
전략기획실
실장

최근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정책 기조는 소규모 대학 입장에서 보면 크게 2019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2025년 라이즈(RISE)사업(이하 '라이즈 사업'), 2026년 앵커(ANCHOR)사업(이하 '앵커 사업')의 흐름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 대학과 같은 꽤 많은(?) 소규모 기독교대학은 어떻게 대학의 정체성을 수호하면서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앵커 사업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 라이즈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를 발전시켜 지역 균형성장을 목표로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재정립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이름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앵커 사업으로 전환하는 주요 목적은 기존 라이즈 사업에서 예산 배분, 지방정부와 대학의 소통, 학생·인재에 대한 충분한 고려 등에서 발생한 문제를 점검하고 평가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지역학생과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우수사례를 지역 간 전파·확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이번 정부의 '5극3특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해, 각지의 청년이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범정부 국가균형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지역대학을 혁신 중심(허브)으로 육성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주 인재가 확대될 수 있게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라는 발언은 소규모 대학에 미치는 명암의 정도가 크다.

라이즈 사업의 앵커 사업으로의 전환은 소규모 대학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먼저 대학혁신지원사업처럼 대학의 혁신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재정지원사업과는 달리 대학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수요를 결합한 새로운 성과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교육부장관의 언급처럼 "5극3특 권역별 공유대학" 모형(모델)을 도입한다든지, 지역-기업-대학 협업 모형(모델)을 지원한다는 것은 소규모 대학에게는 태생적이고 구조적인 어려움을 수반하는 일이다.

이런 정책적 환경에서 소규모 기독교대학은 세 가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첫째,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성과창출에 대한 요구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 대규모 산학협력, 연구개발, 첨단장비로 무장한 대형 대학과는 경쟁이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앵커 사업에서 주요 키워드인 산업, 취업, 지역혁신, 성과관리 등은 기독교 대학만이 갖는 정체성이 담긴 교육적 특성이 도외시되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대학의 재정확보만을 추구하다 보면 대학 고유의 교육방향이 흐려질 수 있다.

그렇다면 소규모 기독교 대학은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랫동안 우리 대학의 리더십에서 끊임없이 숙의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 특성에 맞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우리 대학 내부의 교육체계를 고도화하는 기제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동안 해왔던 일립교육, 교양교육, 전공교육, 교수법, 교육환경의 혁신과 함께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 이해, 생명윤리, 노동과 소명, 공동체 책임, 돌봄과 정의 등의 주제를 혁신사업 전반에 담아내어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현대적 교육과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앵커 사업에 있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취창업교육 플랫폼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앵커 사업의 키워드는 취업, 창업, 인턴십, 지역정주, 학생 체감 성과이므로 소규모 대학인 우리 대학은 대규모 연구중심 대학의 첨단사업 인재양성 모델과는 달리 우리 대학의 전공구조에 적합한 특성화된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 한마디로, 'AI·디지털 역량 기반 돌봄·복지·교육 분야 실무인재 양성'을 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전략을 통해, 우리 대학 재학생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능은 물론 노원구를 포함한 서울 지역의 청년, 특히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인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요구된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향후 참여하게 될 앵커 사업을 우리 대학의 발전계획(K-BIBLE VISION 2032)의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만의 브랜드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예컨대 'KBU 밀알인재 육성 프로젝트', 'KBU형 AI휴먼서비스 인재 양성 모델' 등의 사업명을 통해 혁신사업과 앵커 사업을 연결(linking)해야 한다. 포장만 그럴싸한 상품이 아니라 진짜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라이즈 사업의 앵커 사업 전환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 대학의 입장을 정리하고 싶다. “한국성서대학교는 대규모 연구중심대학과 같은 지역혁신 모델이 아닌, 한 사람을 살리겠다(NSLB)¹⁾는 정신으로 청년을 회복시키고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한다. AI 시대에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에 돌봄, 복지, 교육, 보건 분야라는 AI휴먼서비스 분야의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소규모 기독교 대학 모델」을 구축하겠다.”

1) NSLB는 No Student Left Behind의 약어로서,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교육하겠다”는 우리 대학만의 교육철학임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가톨릭대, '100인의 연결'로 학생 지원의 공백을 채우다 전공자유선택제 신입생 대상 '가대 후배사랑 100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백소연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부교수

가톨릭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공자유선택제 신입생의 대학 적응과 전공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가대 후배사랑 100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단순한 선후배 교류를 넘어 입학 초기 학생들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자유전공학부 및 광역계열 학생들이 대학생활 초기 단계에서 경험하는 정보 부족, 진로 및 전공 선택의 어려움, 소속감 결여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대학 적응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공자유선택제 신입생은 일반 학과 신입생과 달리 대학생활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대학 제도와 수업 방식, 학사 운영에 대한 정보 부족은 대학 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며, 자유전공학부와 광역계열 특성상 입학 시점에서 전공 및 진로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또한 소속 학과가 정해져 있지 않아 동기 및 선배와의 교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며, 이는 심리적 불안과 소속감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초기 대학 적응뿐 아니라 학업 지속과 대학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가톨릭대학교는 학생 간 연결을 기반으로 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은 I-DESIGN과 Career DESIGN 교과목과 연계된 수업 기반 멘토링 체계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운영 구조는 담당교원 - 멘토 - 멘티의 3단 체계로 구성되었다. 담당교원 15명이 직접 멘토를 선발하여 진로 탐색 및 학과 선택을 지도하였으며, 31개 학과에서 선발된 멘토 105명과 전공자유선택제 신입생 664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멘토 1명당 6~7명의 멘티를 배정하여 소규모 팀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 간 긴밀한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I-DESIGN, Career DESIGN 수업 연동형 멘토링 운영 체계

담당 교원 15명
(지도교수)

I-DESIGN, Career DESIGN 수업 담당 · 멘토 7명 직접 선발
· 진로 탐색 및 학과 선택 지도

멘토 105명
(31개 학과)

팀 활동 자율 계획·운영 · 학기당 6회 이상 · 주차별 보고서 제출

멘티 664명
(2025학년도 자유전공학부,
2대 광역계열 신입생)

계열별 멘토 전공 유사 매칭 · 멘토 1명 + 멘티 6~7명 = 1팀

멘토링 활동은 대학생들 전반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전공 소개와 실험실 방문, 동아리 탐방 등 학과 및 진로 탐색 활동뿐 아니라 학교 축제 참여, 외부 박람회 및 공연 관람, 친목 활동 등 참여자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었다. 또한 계열별·분반별 행사 및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교류를 확대하고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운영을 통해 학사 정보 제공을 넘어 대학 적응과 자기주도적 전공 탐색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활동 관리 및 보고 시스템도 함께 구축하였다. 멘토들은 활동 일시, 참여 인원, 활동 사진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한 주차별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당교원이 이를 확인하는 체계를 통해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활동 내용과 성과, 개선사항, 총평 등을 포함하여 향후 프로그램 개선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활동 영상을 제작·제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변화 과정과 참여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1년간의 운영 결과, 프로그램은 다양한 정량적 성과를 나타냈다. 연간 멘토링 진행 횟수는 총 1,228회에 달했으며, 1학기 615회, 2학기 613회로 두 학기 모두 안정적인 운영 실적을 유지하였다. 장학금 및 ELP+ 인정점수 부여와 연계하여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활동 완수율 역시 양학기 모두 90% 이상을 기록하였다. 2학기에는 75명의 멘토가 연속적으로 참여하였고, 1년 활동을 완료한 학생들에게 오픈배지가 발급되는 등 참여 지속성을 높이는 성과도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나갔다는 점이다.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 결과, 멘토 만족도는 1학기 77.9%에서 2학기 90%로 12.1%p 상승하였다. 이는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이 프로그램 개선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정성적 성과 역시 확인되었다. 멘티들은 대학생활 초기 정보 격차를 빠르게 해소하고 전공 탐색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멘토들은 의사소통 능력과 리더십, 책임감 등 핵심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선후배 간 경험 공유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멘토 재신청률은 34.1%, 멘티의 멘토 전환율은 15.7%를 기록하며 도움을 받은 학생이 다시 후배를 돕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가톨릭대학교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2026학년도부터 멘토 인원을 확대하고 팀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 체계를 개편하였다. 멘토 수를 기존 105명에서 130명으로 확대하고 팀당 멘티 인원을 조정하여 보다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 간 연결을 기반으로 한 성장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과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디지털 학술 리터러시의 장을 열다



강경희

강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팀원

▮ 디지털 학술 리터러시의 장을 열다

강남대학교(총장 윤신일) 중앙도서관은 지난 5월 6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 과제인 맞춤형 학습지원 및 스마트 학습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개최한 「2026 전자정보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전자정보박람회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술 정보와 전자자원(WebDB)의 활용 방법 홍보 및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스마트 학습 환경에 맞춰 AI를 활용한 자료 검색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는 박람회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학생 개인의 연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 학술 정보 자산의 대중화, “기회”를 “성과”로 바꾸다

이번 박람회의 핵심 키워드는 ‘AI 리터러시’로 참여한 6개 주요 학술 DB업체 역시 단순 검색법을 넘어 아래와 같은 심화교육을 제공했다.

업체명	WebDB명	주요 내용
누리미디어	DBpia	AI 기반 논문 추천, 국내 학술논문 통합검색 및 원문 제공, 연구동향 분석 지원
한국학술정보	KISS	국내 학술지·학위논문 검색 및 원문 제공, KCI 연계 인용정보·학술지 정보 확인
학술교육원	e-article	국내 학술논문 통합검색 및 원문 제공, 주제별 학술정보 탐색 지원
메가콘텐츠	교보스콜라	국내외 학술자료 검색 및 eBook·전자자료 열람 지원
카이로스	KOREASCHOLAR	국내 학회 중심 학술논문 검색 및 원문 제공, 분야별 학회자료 탐색 지원
EBSCO Korea	EBSCOhost	해외 학술저널·전자저널 통합검색, 검색 알고리즘 활용 및 원문 확보 전략 지원

올해 박람회는 지난해 대학 축제기간과 맞물려 발생했던 간섭 효과 분석과 전략적 타겟팅을 통해 중간고사 직후와 축제 이전의 ‘황금 시간대’를 포착해 에브리타임, SMS,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입체적 홍보가 빛을 발한 행사였다. 그 결과, 참여 인원이 계획 목표치인 200명을 크게 상회하는 258명을 기록했다.

수치로 보는 만족도와 학생 체감도

박람회 종료 후 실시된 만족도 조사 결과, 모든 부문에서 '매우 만족' 수준인 4.7점대(5점 척도)를 기록했다

4.70점

전자정보박람회
전반적 만족도

4.76점

프로그램의
지속/확대 희망

4.74점

핵심 역량 향상
도움의 정도

4.65점

행사 운영시기
및 장소의 적절성

참여 소감

- ☀ "그동안 도서관 사이트에서 논문을 찾는 것이 막막했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AI를 활용한 논문 검색과 인용 방법을 배우며 과제 수행의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전공 관련 WebDB를 직접 다루어본 것이 큰 수확입니다."
- ★ "KNU Discovery 통합검색의 유용성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 ★ "AI를 활용한 논문 검색 방법에 과제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 "해외 학술자료 및 인용 문헌 작성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
- ✿ "산업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전년 대비 참여 인원 34%가 증가한 수치이며 참여 인원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95.7%라는 높은 이수율을 유지한 것은 학생들의 프로그램 몰입도가 매우 높았음을 시사한다. 박람회 종료 후 실시된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모든 부문에서 '매우 만족' 수준인 4.7점대를 기록했다. 특히 '전자정보박람회의 지속 운영 및 확대 희망' 문항은 4.76점(5점 척도)을 기록해 행사의 정례화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한 강남대학교 6대 핵심역량 중 '정보·자원·기술 활용' 및 '창의융합'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결과, 역량 향상 도움 정도에서 4.74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6 전자정보박람회 행사 사진

일시: 2026년 5월 6일(수) 10:00-16:30
장소: 강남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복개층



강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다음 스텝

강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은 2026 전자정보박람회의 개선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스마트 인재 육성을 위한 정보 활용의 메카가 되겠다.

공간의 확장

책가도를 넘어 중앙도서관 내 행사 공간을 확대하여 밀집도 완화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

대상층의 심화

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자를 위한 전공 밀착형 세션 강화

상시 교육 체계 구축

박람회 기간 외에도 소규모 DB 세미나를 상설 운영하여 학습 지원의 연속성 확보

데이터 기반
학습 생태계 구축
및
디지털 학습 자원
활용

강남대학교 중앙도서관장(박영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은 “이번 전자정보박람회의 성공은 디지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학술 정보 자원을 선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얼마나 큰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강남대형 스마트 인재’ 육성을 위한 정보 활용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마음과 마음을 잇다, 「마음잇기」 현장 스케치



박선미

경일대학교
통합상담관리센터
전임연구원

커피 향 가득한 곳에서 피어난 우리들의 이야기
(지도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마음잇기」 프로그램)

▮ 프로그램 소개 : 「마음잇기」란 무엇인가요?

경일대학교 통합상담관리센터에서는 지난 학기, 전담지도교수와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일상의 고민부터 대학 생활 전반의 비전을 나누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마음잇기」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상담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상담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가장 친숙하게 느끼는 교내 카페라는 일상적인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다과를 곁들이며, 교수님과 제자가 아닌 '인생의 선배와 후배'로서 마음의 벽을 허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참여 대상 : 전담지도교수 1인 및 재학생 3~8명 (소그룹)
- 지원 내용 : 교내 카페 음료 및 다과비 지원
- 주요 주제 : 대학 생활 적응, 대인관계, 진로 및 취업 고민, 심리적 안정 등

▮ 운영 현황 : 상담실 밖에서 찾은 진솔한 소통

「마음잇기」는 학생들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딱딱한 책상을 사이에 두는 대신, 카페의 편안한 소파에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학업과 진로, 취업준비는 물론 심리·적응 및 일상의 소소한 취미 생활까지 가벼운 담소에서 구체적인 진로 로드맵을 설정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후기 : “교수님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2025년 「마음잇기」 프로그램을 통해 총 348개 집단이 운영되었으며,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1,966명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4.9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교내의 다양한 지원 체계(강학, 심리검사, 취업 프로그램 등)을 지도교수를 통해 직접 안내받음으로써 막연했던 대학 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교수님 연구실은 왠지 문을 두드리기 어려웠는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니 마음이 훨씬 편안했어요. 제가 고민하던 진로 문제를 교수님이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구체적인 교내 프로그램까지 추천해 주셔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 간호학과 3학년 이○○ -

“강의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학생들의 밝은 모습과 숨겨진 고민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 기분이라 앞으로 지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지도교수 -

주요 성과 및 기대효과

이번 「마음잇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첫째,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공고히 하여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소속감을 높여 사제간 유대감이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맞춤형 정보 전달로 개별 학생의 상황에 맞는 교내 지원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브릿지(Bridge)’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셋째,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재학생들의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 [Photo Essay] 우리 팀의 '인생 샷'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2025 대학 특성화 연계 학과특성화 사업 추진 성과 ‘꿈을 노래로, 배움을 무대로’



정철

나사렛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담당

2025 대학특성화 연계 학과 특성화 사업

나사렛대학교는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하나로 학과별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 특성화 연계 학과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관부서인 특성화기획단에서는 학과의 특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학생들의 역량과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총 93,000,000원을 투입하여 23개 특성화 사업(21개 학과)을 지원했다.

나사렛대학교 ‘대학 특성화 연계 학과 특성화사업’ 주요 프로그램

학과명	사업명	학과명	사업명
실용음악학과	‘Na는 가수다’ 프로젝트	유아특수 교육과	누리과정 전문가를 위한 유아 특수교사 현장연계 프로그램
항공호텔관광 경영학과	항호경 Glocal 3+1 나눔인재 특성화 프로그램	인간재활학 전공	재활 및 장애인 복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장 적용형 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
간호학과	“CARE+ 나눔인재 성장 프로젝트”	중등특수 교육과	생성형 AI 활용 특수교육 교재·교구 개발 및 창의수업 경진대회
금융부동산 학과	국토의 공간정보시대에 대비한 드론전문가 특별과정	사회복지학부	지역사회 내 기관 현장 실무 체험
방송시각영상 디자인학부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LAB II” - 차세대 콘텐츠제작 역량 강화 -	아동심리교육 학과	지역사회 아동과 함께 나누고 같이 성장하는 Na-Vitamin
특수체육학 트랙	현장 맞춤 APA(Adapted Physical Ac- tivity) 지도자 역량강화 Program	스포츠재활 트랙	스포츠재활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Na-Do AT(Athletic Trainer)”
특수교육과	미래 사회 요구에 대응하는 자기 주도형 특수교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어통역교육 전공	전문 분야 수어통역 역량 향상 프로젝트
언어치료학과	AI시대의 언어재활사 융합역량 강화사업	응급구조학과	실무형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PHTLS-provider 양성 프로젝트
상담심리학과	심리치료 매체의 통합적 접근과 현장 적용	임상병리학과	실무역량 강화와 융합교육을 통한 미래 임상병리사 양성 프로그램
재활의료 공학과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제작 및 사후관리사업	경찰행정학 전공	현장 중심 경찰행정 실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꿈을 노래로, 배움을 무대로』 실용음악학과 ‘Na는 가수다 프로젝트’

K-POP을 중심으로 한 대중음악은 단순한 문화 콘텐츠를 넘어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언어가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론과 실기를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창작과 제작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실용음악과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학생들이 ‘배우는 사람’을 넘어 ‘창작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특성화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사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며, 세상에 발표하는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이론 중심의 학습을 실무 중심의 역량으로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무대와 음원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표현하고, 미래 음악 산업을 이끌어갈 실용형



본문 참조하세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실용음악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연 - 프로듀싱-퍼블리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실무 경험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단계별 특성화 운영체계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학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역량’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본 사업을 통해 실용음악학과 학생들은 공연과 제작 전반에 걸친 실무 경험을 축적하며, 음악인으로서의 자신감을 크게 향상했다. 실제로 학내 콘서트, 음원 제작 프로그램에는 총 10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은 공연을 통해 무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관객과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다. 또한, 음악 프로듀싱 및 퍼블리싱 과정을 통해 녹음, 믹싱, 마스터링 등 음악 산업의 핵심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 대학 특성화 연계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성과

나사렛대학교는 '기본에 충실한 학생 중심 특성화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스마트 재활복지 특성화 고도화'와 '늘 곁에 있는 나눔품성 특성화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대학 특성화 연계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본 사업은 단순한 프로그램 지원을 넘어, 학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총 21개 학과, 23개 사업이 운영되며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 각 학과는 전공 특성에 기반하여 산업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이론 중심의 학습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다. 특히, 실용음악학과의 'Na는 가수다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드론 활용, AI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 임상 및 재활 실습,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 등은 학생들에게 실제 산업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며 학습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 사고, 협업 역량 등 핵심 학습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와 같은 대학 특성화 연계 프로그램은 학생의 학습경험을 '지식 습득'에서 '실천과 성장'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대학이 지향하는 학생 중심 교육의 실질적 구현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재정 지원과 운영 기반 위에서 가능하였으며, 학과별 특성화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나사렛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학습역량과 실무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실천형 인재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DODU 멘토링] 함께 걷는 대학생학, 서로의 성장을 잇다 - 멘토·멘티 상호 성장을 통한 공동체 문화 형성 -



민지현

대구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전임연구원

배경

재학생들은 대학생학 과정에서 학업, 대인관계, 진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학생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으로 대학생학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 참여형 멘토링 프로그램인 DODU멘토링을 운영하였다.

또한 대학생학 적응에 대한 동기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학 적응력 향상과 중도 탈락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멘토와 멘티 간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학생 간 공감과 소통 문화를 확산하여 공동체 소속감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성과사례 추진사업 [DODU멘토링 프로그램]

DODU멘토링은 재학생들의 대학생학 적응력 향상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운영 초기에는 멘토와 멘티를 대상으로 발대식과 관계 형성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 학생 간 친밀감을 높이고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멘토 대상 교육과 중간점검을 통해 멘토링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멘토링 활동과 대학생학문화체험을 통해 대학생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받고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였다. 특히 심리검사, 교내 기관 체험, 캠퍼스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상호 교류와 관계 형성을 이어갈 수 있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수료식을 통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대학생학 적응 동기를 강화하였다.

멘토의 성장 변화는 표 1, 멘티의 대학생학 적응력 변화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발대식



멘토 교육

표 1. 2025-2학기 DODU멘토링 멘토 성장 변화 비교

(N=71)

변인	프로그램 참여 전	프로그램 참여 후	t
	M(SD)	M(SD)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	4.16(.44)	4.41(.49)	-3.433***

***p<.001

본 프로그램은 멘토링 활동이 멘토의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 전과 비교하여 멘토의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 점수가 4.16(.44)에서 4.41(.49)로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었다($t=-3.433$, $p<.001$). 이는 멘토링 활동 과정에서 멘토들이 멘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정서적으로 교류하면서 공감 능력과 대인관계 역량을 향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멘티를 지원하는 경험을 통해 책임감과 자기이해가 증진되는 등 긍정적인 성장 경험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2025-2학기 DODU멘토링 멘티 대학생활 적응력 변화 비교

(N=71)

변인	프로그램 참여 전	프로그램 참여 후	t
	M(SD)	M(SD)	
대학생활 적응도	3.16(.34)	3.73(.41)	-5.251***

***p<.001

본 프로그램은 멘토링 활동이 멘티의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활적응도 검사(SACQ)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 전과 비교하여 멘티의 '대학생활 적응도' 점수가 3.16(.34)에서 3.73(.41)로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t=-5.251$, $p<.001$). 이는 멘토링 활동과 대학생활문화체험을 통해 멘티들이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으며 학교 적응에 대한 자신감을 높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또래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대학생활에서의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경험하며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효과

DODU멘토링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경험하는 학업 및 대인관계 어려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과 중도 탈락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학생 간 정서적 지지와 상호 교류를 통해 공동체 소속감을 높이고 건강한 대학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멘토링 경험은 참여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 대인관계 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학생 주도의 상호 돌봄 문화와 지속 가능한 캠퍼스 공동체 형성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삶과 배움의 이음, 학생 중심의 지속 가능한 학습 공동체 ‘사제동행 이음’



정은지

대구의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연구원

추진 배경 및 목적

대구의대학교 교수학습센터(CTL)는 대학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교수자의 역량 강화와 학습자의 주도적 자기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교육 혁신 기구입니다. 급변하는 교육 패러다임 속에서 본 센터는 단방향적 지식 전달을 넘어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혁신 교수-학습 모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사제동행 이음’은 전공 결정 이전의 무전공 신입생 및 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사경고·중도이탈 고위험군 학생들을 집중 케어하는 대구의대만의 고유한 밀착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교수와 학생이 소규모 팀(교수 1인, 학생 3~4인)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주 1회, 회당 최소 60분 이상, 한 학기 동안 총 5회 이상의 깊이 있는 대면 활동을 수행합니다. 사제 간의 정서적 교류를 학문적·문화적 역량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활동 유형을 4대 분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예산과 고도화된 혜택(교원 업적평가 5점, 학생 스마트포인트 30점)을 전방위로 지원합니다.

학생과 교수자의 요구를 담은 ‘사제동행 이음’ 고도화

본 센터는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소통 플랫폼: 자체 교수역량강화 진단 결과, 많은 교수자가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 핵심 과제로 ‘학습자와의 유대감 강화’를 꼽았습니다. 대형 강의 및 비대면 문화 확산 속에서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할 소통 시스템의 필요성이 현장에서 지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학습자 요구 맞춤형 4대 유형 확립: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진로 몰입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활동 분야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했습니다.

유형	내용
학술연구	전공 학문 심화 학습 및 공동 연구
진로탐색	전공 연계 산업체 및 지역 사회 탐방·견학
체육/문화활동	문화예술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통한 심리적 벽 허물기
도전	최신 AI 및 에듀테크 박람회 참여를 통한 미래 디지털 역량 확장

■ 운영 현황 및 주요 성과 (정량 지표)

‘사제동행 이음’은 단순한 일회성 상담을 탈피하여 실효성 있는 대학 생활 적응 인프라로 자리 잡았음을 수치로 증명해냈습니다.

참여 및 목표 달성률 95% 이상 (이수율 100%): 2025학년도 2학기 운영 결과, 모집 계획(20팀)에 긴밀히 부합하는 총 19팀이 최종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단 한 팀의 중도 포기 없이 총 19팀, 91명(교수 19명, 학생 72명) 전체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주하여 이수율 100%를 달성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만족도 지표의 혁신적 달성: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 기준 당초 목표치(4.3점)를 크게 상회하는 평균 4.72점(교수 4.80점, 학생 4.64점)의 매우 높은 만족도를 도출했습니다. 세부 문항 중 ‘팀원 간의 협동과 유대 관계’가 4.78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하며 정서적 지지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음을 정량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구분	2025학년도 2학기 달성 성과
참여규모	총 19팀 완주
만족도	(교수 19명 / 학생 72명, 총 91명 이수)
핵심 성장 영역	4.72점 / 5.0점 만점



창의성과 유대감으로 증명된 정성적 성과

‘사제동행 이음’에 참여한 팀들은 단순한 모임을 넘어 학문적 성취와 정서적 회복이라는 다채로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 ① 학업 위기 학생의 든든한 안전망: 학사경고 위험군 및 중도이탈 고위험군 학생들이 지도교수와와의 정기적 밀착 상담을 통해 심리적 고립감을 극복하고, 학과 및 대학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안착하는 실질적인 회복의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 ② 교육 현장의 동반 성장 현상: 학생들은 강의실 밖에서 전공 학문에 대한 몰입도와 소속감을 깊이 함양했고, 교수자들은 학습자들의 실제 고충과 일상을 직접 마주하며 교육 현장을 혁신할 새로운 통찰과 보람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환류 계획 및 미래 비전

대구의한대학교 교수학습센터는 전년도 of 가시적인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프로그램을 더욱 정교하게 고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학기 말에는 ‘운영성과공유회’를 공식 정례 행사로 개최하여, 각 팀이 발굴한 독창적인 소통 모델과 우수 활동 사례를 학내 전체 구성원에게 확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환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제 간의 두터운 신뢰 체계가 대학 전체의 문화로 물들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교수와 학생이 서로를 이끌고 채워주며 동반 성장하는 대구한의대학교의 ‘사제동행 이음’은 앞으로도 고등교육 학습 공동체의 가장 모범적인 표준 모델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사제동행 이음」, 다채로운 결실을 맺다

학문적 성취와 정서적 회복을 통해 함께 성장할 의미 있는 여정

① 학업 위기 학생의 든든한 안전망

학사경고, 위험군 및 중도이탈 고위험군 학생들이 지도교수와의 정기적 밀착 상담을 통해 심리적 고립감을 극복하고, 학과 및 대학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안착하는 실질적인 회복의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업 심리적 어려움

학사경고 위험군
중도이탈 고위험군

지도교수와의
정기적 밀착 상담

정신 안정
심리적 지지
정서적 지원

회복의 안전

심리적 고립감 극복
학과 내외 공동체
건강한 일원으로 안착

주요 변화 효과

학업 자신감 회복

동시적 안정

소속감 향상

지속적 대학 생활 적응

② 교육 현장의 동반 성장 현상

학생들은 강의실 밖에서 전공 학문에 대한 몰입도와 소속감을 깊이 함양했고, 교수자들은 학습자들의 실제 고충과 일상을 직접 마주하며 교육 현장을 혁신할 새로운 통찰과 보람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의 성장

- 전공 학문 몰입도 향상
- 학습 동기 및 목표 의지 강화
- 교수-선배와의 유대감 형성
- 학과대학 소속감 증대

교수자의 성장

- 학습자 이해의 폭 확대
- 실제 고충과 일상 이해
- 교육 현장 혁신을 위한 통찰
- 교수자로서 의미 발견과 만족

함께 성장

「사제동행 이음」은 학생과 교수가 함께 **연결**되고 **성장**하는 대학 생활 찍음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제동행 이음 성과



활동사진 1



활동사진 2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스스로 완성하는 전공 로드맵, ‘모듈형교육과정’



김민지

대구의대학교
노마드교육연구센터
팀원

▮ 학생 맞춤형 학습경로 지원을 위한 모듈형교육과정 도입

급변하는 산업 및 직무 환경 속에서 기존 학과 중심 교육과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학생 개인의 역량과 직무 중심으로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학문 및 산업 간 경계가 점차 약화됨에 따라 전공 간 융합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와 학습 목적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은 학생의 적성·진로·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공하고, 전공 간 융합 기반의 교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듈형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듈을 선택·조합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과 실무 및 융합역량을 갖춘 미래형 인재 양성을 핵심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 단계별 운영체계 구축과 학생 참여 기반 강화

2025학년도 모듈형교육과정은 기초·심화·융합모듈 등 단계별 체계로 구성하여 학생이 자신의 역량과 진로에 맞춰 모듈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또한 일정 학점 이상 이수 시 디그리 인증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체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DHU-EDUCARE 운영모델, SOUL 융합교육체계, MATE 디그리 이수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학생 중심의 유연한 학습 경로 설계와 체계적인 이수 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를 고도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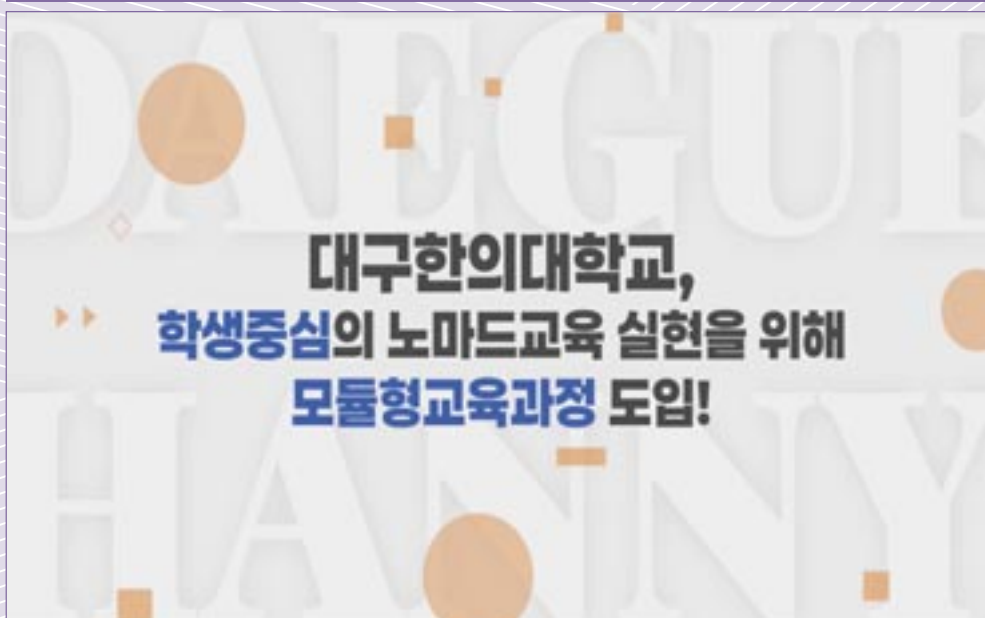
또한 K-MEDI 융합교육과정 개발, G벨트 및 실크로드 모듈 운영, 학과별 간담회 및 교육과정 컨설팅 등을 통해 융합형 인재 양성과 전공역량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학생 설명회와 모듈형교육과정 홍보영상 제작·배포를 통해 모듈형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모듈형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침 및 이수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간담회



설명회



모듈형교육과정 운영 성과와 교육혁신 기반 구축

2025학년도 모듈형교육과정 운영 결과, 전체교육과정 내 모듈형교육과정 반영 수는 총 25개(44.6%)로 목표(30%) 대비 14.6%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총 이수인원은 1,470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K-MEDI 융합 교육과정은 5개 학부(과)에서 12건을 개발하여 학제 간 융합교육체계 구축 성과를 달성하였고, 학과별 간담회 24건 운영을 통해 전공역량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내 모듈형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체계의 정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듈형교육과정 운영모델(DHU-EDUCARE), 융합교육체계(SOUL), 학위 이수체계(MATE)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학습 경로 설계와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단순한 교육과정 개편을 넘어 학생 중심 교육혁신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협력·환류 기반의 모듈형교육과정 질적 고도화

향후에는 모듈형교육과정 운영 확대를 위해 기초모듈, 심화모듈, 융합모듈, 패키지모듈 등 학습 수준 및 목적에 따른 단계별 모듈 체계를 더욱 다양화하고, 학과별 특성과 전공역량을 반영한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융합모듈 운영 활성화 및 이수율 제고를 위해 학과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운영 지원과 다양한 이수 혜택 제공 등을 통해 학생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학과 간 운영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례 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협력·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운영 사례 확산을 통한 모듈형교육과정의 질적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전공을 고를 자유, 미래를 설계할 기회 : 전공자유선택제 운영을 통한 학생 성장 기반 구축



전소라

대한한의대학교
노마드교육연구센터
행정직

전공 선택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노력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은 흔히 “나에게 정말 맞는 전공인지 모르겠다.”거나 “고교 시절 충분히 탐색할 시간이 없었다.”는 고민을 토로합니다. 우리 대학은 전공 선택이 입학 시점의 일회성 결정으로 끝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급한 결정을 지양하고 입학 이후 다양한 전공을 충분히 경험한 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전공자유선택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단순히 전공을 배정하는 행정 절차를 넘어, 학생이 자기이해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진로 탐색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 혁신 모델’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공자유선택제 단계별 성장 지원 로드맵 4단계」를 구축하였으며, 각 단계에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의 연락처를 돕는 단계별 밀착 프로그램

전공자율선택제의 실질적인 운영은 학생들의 입학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 2월 입학식과 함께 실시된 '전공자율선택제 입문 세미나'를 통해 신입생들은 제도의 핵심 개념과 연간 로드맵을 명확히 인지하며 대학 생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어지는 신입생 간담회와 선배 밀착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제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제도를 경험한 선배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입생들은 전공 선택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받으며 자기주도적인 탐색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입학식 입문 세미나



신입생 간담회



선배 밀착 네트워킹



전공자율선택제 설명회

경험과 환류 중심의 전공 탐색 고도화: Field Trip과 설명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전공의 실체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Field Trip'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공 맛보기 체험인 Field Trip Basic과 심화 탐구인 Field Trip Advanced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강의실 밖에서 전공의 매력을 발견합니다. 특히 중간고사를 마친 5월 초에는 '전공자율선택제 설명회'를 개최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했습니다. 입학 전후 안내된 제도의 실행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전공 배정과의 연계성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설계 과정을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교육적 지원: 정책연구를 통한 DHU-CMAT 개발 및 운영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전공적합성 진단도구(DHU-CMAT)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진단도구는 학생의 핵심역량과 전공 선호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최적의 전공 경로를 제안합니다. 학생들은 1차 탐색형 검사와 2차 확인형 검사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며, 이는 막연한 추측이 아닌 근거에 기반한 전공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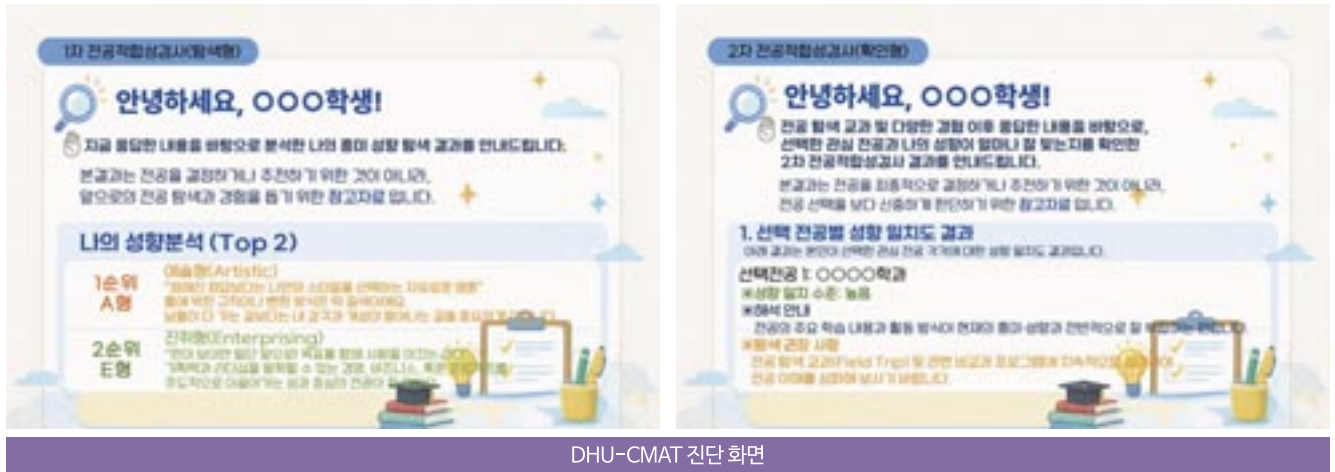
▼ 지원 인프라와 데이터



Adventure Lounge



학과 홍보영상 콘텐츠



DHU-CMAT 진단 화면

인프라 및 콘텐츠 활성화: 전공탐색라운지와 디지털 가이드

학생들의 자발적인 탐색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전공탐색라운지(Adventure Lounge)'는 전문가 상담, 소그룹 모임, 전공 도서 열람 등이 상시 이루어지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공 자율선택제 길라잡이' e-book을 제작하여 정보 접근성을 극대화하였으며, 재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촬영에 참여한 학과별 특성화 홍보영상은 학생 눈높이에서 생생한 전공 경험과 교육과정을 전달하는 핵심 매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을 향한 성과와 확산

이러한 다각도 노력을 통해 학생들은 전공 선택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막연했던 전공 결정 과정이 명확해졌다”는 학생들의 피드백은 본 제도가 대학 교육의 질적 혁신을 이끄는 표준 모델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정책연구 및 제도 고도화, 학생 밀착형 프로그램의 확대를 지속할 것입니다. 교과와 비교과,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공 탐색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학생이 만들고 함께 완성한 토론의 장, 2025학년도 <CUP 토론한마당>



조성구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전임연구원

지역사회 이슈를 주제로 비판적 사고와 소통 역량을 키우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CUP 토론한마당>은 학생들이 직접 지역사회 이슈와 관련된 토론 주제를 제안하고, 선정된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대회를 진행하는 부산가톨릭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 참여형 토론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팀 단위 활동을 통해 협업 및 팀워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CUP 토론한마당>은 단순한 토론대회를 넘어, 학생이 주제를 제안하고 토론에 참여하며 청중평가를 통해 최종 시상까지 함께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토론주제 공모전, 생성형 AI 기반 온라인 토론 교육, 예선 및 본선 토론대회, 온·오프라인 청중평가로 구성되었으며, 재학생 4인이 한 팀을 이루어 선정된 우수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펼쳤다.

학생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토론 한마당

2025학년도 <CUP 토론한마당>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토론주제 공모전에는 총 19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가운데 우수 주제 6건이 선정되었다. 이후 예선 토론대회에는 10개 팀, 총 4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본선을 통해 최종 2개 팀이 선정되어 ‘지역 청년 우선 채용 정책은 정당한가?’를 주제로 본선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지역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탐색하고,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며, 상대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생성형 AI로 토론 준비의 완성도를 높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토론대회 전 생성형 AI를 활용한 온라인 토론 교육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토론의 구조와 논리 전개 방식을 이해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토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학생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쟁점을 탐색하고,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며, 예상 반론을 검토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토론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시대에 필요한 정보 활용 역량과 비판적 사고력을 함께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생성형 AI를 토론 준비 과정에 접목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보다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팀원들과 협력하여 토론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왔다.

▼ 운영방식

운영절차	세부내용
학생 토론주제 공모전 실시	· 공모전 신청서 및 토론주제 개요 작성 후 제출 · 심사를 통한 우수 주제 선정
↓	
토론 참여팀 모집	· 프로그램 홍보 및 토론 참여팀 모집
↓	
토론자기효능감 검사(사전) 실시	· 토론대회 참여학생 대상 토론자기효능감 검사(사전) 실시
↓	
토론대회 참여학생 대상 사전 토론교육실시	· 토론대회 참여학생(40명) 대상 사전 토론교육(생성형 AI로 토론하기) 실시
↓	
예선·본선 토론대회진행	· 선정된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대회 운영 · 진행순서 - 예선대회(10팀 참여, 5개조로 나누어 실시) - 본선대회(예선 토론 점수 상위 2팀 참여) - 본선대회 시 학생 오프라인 청중평가 실시 · 심사위원 3인 심사 참여
↓	
본선대회 청중평가 실시	· 본선대회 종료 후 2주일간 학생 온라인 청중평가 실시 (본선 촬영본 온라인 LMS 자율강좌 탑재 후 투표)
↓	
시상 및 만족도 조사 토론자기효능감 검사(사후) 실시	· 시상(심사위원 점수와 청중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팀 선정) · 만족도 조사 및 토론자기효능감 검사 실시

180명이 함께한 토론문화 확산

2025학년도 <CUP 토론한마당>에는 공모전, 토론대회, 청중평가를 포함하여 총 18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청중평가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프라인 26명, 온라인 95명 등 총 121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토론대회가 참가팀 중심의 활동을 넘어 학내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확장되었다.

참여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5점 만점 기준 토론주제 공모전 만족도는 4.88점, 토론대회 만족도는 4.50점을 기록하였다. 또한 토론 자기효능감 검사 결과, 사전검사 4.28점에서 사후검사 4.63점으로 상승하여 프로그램 참여가 학생들의 토론 자신감과 의사소통 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토론대회 참여팀은 전년도 대비 4팀, 16명이 증가하여 학내 토론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토론 교과 담당 교수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비교과 프로그램과 교과 교육 간 연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역량을 통합적으로 함양하는 데 기여하였다.

〈CUP 토론한마당〉은 디지털 및 AI 기반 시대에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력과 민주적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산가톨릭대학교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토론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이슈와 연계한 토론 주제를 확대하여 〈CUP 토론한마당〉을 더욱 내실 있는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토론 대진표 추첨 장면



토론 예선대회 개최



토론 본선대회 개최



토론 종료 후 단체 사진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나만의 AI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만들다 ‘AI 진로 적성 진단’



윤성범

부산가톨릭대학교
진로취창업지원센터
전임연구원

▮ “나의 전공, AI가 길을 찾다”... ‘AI 적성 진단 및 커리어 로드맵’ 프로그램 전격 시행

올해 4월부터 우리 대학교는 학부 및 대학원생들의 체계적인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자기 이해 기반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재학생 및 휴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커리어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프로그램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채용 시장과 급변하는 전공 생태계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적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AI 적성 진단 검사도구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정밀 상담 시스템을 구축,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최적화된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 맞춤형 전공 선택부터 창업 아이템 고민까지 ‘원스톱 해결’

우리 대학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히 성적에 맞춘 진로 선택이 아닌, 개인의 키워드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여 나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싶은 신입생은 물론, 자신만의 강점이 담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취업 준비생, 그리고 적성에 맞는 창업 아이템을 고민하는 예비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미 전공을 결정한 학생이라도 본인의 선택에 확신이 없거나, 복수전공·부전공·연합전공 등 다전공 선택을 앞두고 고민하는 경우 AI 진단을 통해 융합형 진로 설계가 가능하다. 특히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학부 소속 학생들에게는 본인의 잠재력을 파악해, 조기에 진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 학습 지원을 넘어 교육 과정 혁신으로 연계

이번 프로그램의 강점은 진단 결과가 실제 교육 현장에 즉각 반영된다는 점이다. 적성 진단을 통해 도출된 강점과 약점은 대학 내 강의 추천 시스템과 연계되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대학은 누적된 진단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요구가 높은 분야를 파악, 신규 강좌 개설의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아울러 상담 효율성 또한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 상담실을 방문하기 전 온라인으로 진단을 완료함으로써, 기초적인 상담에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하고 실제 핵심 전략 수립에 집중하는 심층 상담이 가능해진다. 이는 취업 지원 및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생각지 못한 적성과 흥미 발견”... 학생들의 뜨거운 반응

“1~4순위가 기존에 고민하던 학과와 일치해 확신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5순위로 추천된 의외의 학과를 통해 새로운 적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흥미를 넘어 지식과 역량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해 주어 진로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참여 학생 인터뷰 중

‘시 진로 적성 검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시 진단의 정교함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 학생은 “의외의 전공이 추천되어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분석 내용을 읽어보니 평소 내가 흥미를 느꼈던 요소들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었다.”며 “막연했던 미래가 구체적인 데이터로 정리되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커리어 네비게이터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시도이며, 시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최적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학과와 적성학과 비교

본 프로그램은 학생의 희망학과와 적성학과를 비교하여, 학생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추천하고, 해당 학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희망학과 선택하기

2. 적성학과 추천하기

3. 비교 분석하기

4. 결과 출력하기

5. 결과 저장하기

6. 결과 공유하기

7. 결과 삭제하기

8. 결과 복구하기

9. 결과 인쇄하기

10. 결과 다운로드하기

11. 결과 업로드하기

12. 결과 동기화하기

13. 결과 동기화하기

14. 결과 동기화하기

15. 결과 동기화하기

16. 결과 동기화하기

17. 결과 동기화하기

18. 결과 동기화하기

19. 결과 동기화하기

20. 결과 동기화하기

21. 결과 동기화하기

22. 결과 동기화하기

23. 결과 동기화하기

24. 결과 동기화하기

25. 결과 동기화하기

26. 결과 동기화하기

27. 결과 동기화하기

28. 결과 동기화하기

29. 결과 동기화하기

30. 결과 동기화하기

31. 결과 동기화하기

32. 결과 동기화하기

33. 결과 동기화하기

34. 결과 동기화하기

35. 결과 동기화하기

36. 결과 동기화하기

37. 결과 동기화하기

38. 결과 동기화하기

39. 결과 동기화하기

40. 결과 동기화하기

41. 결과 동기화하기

42. 결과 동기화하기

43. 결과 동기화하기

44. 결과 동기화하기

45. 결과 동기화하기

46. 결과 동기화하기

47. 결과 동기화하기

48. 결과 동기화하기

49. 결과 동기화하기

50. 결과 동기화하기

51. 결과 동기화하기

52. 결과 동기화하기

53. 결과 동기화하기

54. 결과 동기화하기

55. 결과 동기화하기

56. 결과 동기화하기

57. 결과 동기화하기

58. 결과 동기화하기

59. 결과 동기화하기

60. 결과 동기화하기

61. 결과 동기화하기

62. 결과 동기화하기

63. 결과 동기화하기

64. 결과 동기화하기

65. 결과 동기화하기

66. 결과 동기화하기

67. 결과 동기화하기

68. 결과 동기화하기

69. 결과 동기화하기

70. 결과 동기화하기

71. 결과 동기화하기

72. 결과 동기화하기

73. 결과 동기화하기

74. 결과 동기화하기

75. 결과 동기화하기

76. 결과 동기화하기

77. 결과 동기화하기

78. 결과 동기화하기

79. 결과 동기화하기

80. 결과 동기화하기

81. 결과 동기화하기

82. 결과 동기화하기

83. 결과 동기화하기

84. 결과 동기화하기

85. 결과 동기화하기

86. 결과 동기화하기

87. 결과 동기화하기

88. 결과 동기화하기

89. 결과 동기화하기

90. 결과 동기화하기

91. 결과 동기화하기

92. 결과 동기화하기

93. 결과 동기화하기

94. 결과 동기화하기

95. 결과 동기화하기

96. 결과 동기화하기

97. 결과 동기화하기

98. 결과 동기화하기

99. 결과 동기화하기

100. 결과 동기화하기

나의 희망학과와 적성학과 비교 (적합도, 차이, 융합인재 가능성, 미래 분야 등)

커리어 로드맵

본 프로그램은 학생의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하고,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커리어 로드맵 작성하기

2. 직업군 정보 보기

3. 커리어 로드맵 저장하기

4. 커리어 로드맵 공유하기

5. 커리어 로드맵 삭제하기

6. 커리어 로드맵 복구하기

7. 커리어 로드맵 인쇄하기

8. 커리어 로드맵 다운로드하기

9. 커리어 로드맵 업로드하기

10.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11.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12.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13.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14.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15.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16.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17.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18.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19.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20.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21.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22.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23.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24.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25.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26.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27.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28.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29.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30.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31.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32.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33.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34.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35.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36.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37.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38.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39.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40.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41.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42.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43.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44.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45.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46.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47.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48.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49.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50.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51.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52.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53.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54.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55.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56.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57.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58.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59.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60.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61.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62.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63.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64.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65.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66.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67.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68.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69.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70.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71.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72.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73.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74.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75.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76.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77.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78.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79.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80.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81.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82.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83.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84.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85.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86.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87.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88.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89.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90.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91.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92.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93.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94.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95.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96.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97.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98.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99.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100. 커리어 로드맵 동기화하기

커리어 로드맵 (관련 직업 정보 제공)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숙명여대 대학혁신단, ‘2026 숙명행복성장주간’ 부스 개최”



김호정

숙명여자대학교
대학혁신단
직원

추진배경 및 목적

숙명여자대학교는 지난 4월 28일(화)부터 29일(수)까지 이틀간 교내 순천관 광장에서 ‘숙명행복성장주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교내 주요 행정 부서가 직접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학생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학생 중심으로 확산하고 수요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학생들이 각 부스를 체험하고 스탬프를 모으면 보냉백과 대학 마스코트인 ‘눈송이’ 굿즈 등을 증정하는 참여형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26 숙명행복성장주간 대학혁신단 부스 행사 진행 모습 1



2026 숙명행복성장주간 대학혁신단 부스 행사 진행 모습 2

▮ 운영 내용

이번 숙명행복성장주간에는 대학혁신단을 비롯한 교내 15개 주요 부서가 참여해 핵심 프로그램과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 중심의 실시간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정보 접근성과 체험도를 대폭 높였다. 이에 더해 6개 부서가 참여한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여, 현장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의 참여 접근성도 함께 높였다.

숙명여대 대학혁신단은 ‘혁신한입 베이커리’라는 친밀감 있는 주제로 참여해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주요 성과 및 2026년 추진 사업들을 공유했다. 부스 내에 전자칠판을 도입하여 EDU EXPO, 글로벌, 도서관, 장학금, 진로, 새내기, 창업, 학교 개선, 행복 등 9개 키워드 중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선택하면 관련 혁신 사업을 맞춤형으로 설명해 주는 코너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대학혁신단 부스 내에서는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숙명여대 전용 생성형 AI 플랫폼 ‘스노우챗 (SNOWCHAT)’ 홍보 코너도 함께 운영됐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스노우챗은 기존 ‘AI 팩트 챗’을 대학 정체성에 맞춰 리브랜딩한 플랫폼으로, 챗GPT, 제미니(Gemini), 클로드(Claude) 등 다양한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통합 제공한다.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연구원 등 교내 구성원에게 매월 5,000 크레딧이 지원되며 학습, 연구, 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생성형 AI 기반 학습공동체로 본 AI 융합교육의 가능성 - ChatGPT를 활용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교육적 의미를 중심으로 -



성용석

영남대학교
교육혁신센터
연구원

사업 추진 배경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은 대학 교육에 새로운 가능성과 과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대학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이 단발성 특강이나 도구 사용법 중심 수업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규 교과목의 성적 평가 구조 안에서는 AI를 탐색적·실험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영남대학교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비교과 학습공동체 트랙을 활용하여 학습자 자율성과 협업을 기반으로 한 「ChatGPT 기반 학습연구회지원사업」을 2024학년도 1학기부터 2025학년도 2학기까지 4개 학기에 걸쳐 운영하였다.

운영 개요 및 참여 현황

본 사업은 2~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팀당 3~4명 단위의 소규모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연구 주제를 설정하여 한 학기 동안 ChatGPT를 활용한 탐구 활동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약학·공학·자연·인문·사회·예체능 등 전 학문 분야에서 총 146팀, 49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학기	선발 팀수	참여 학생수	주요 참여 전공 분야
2024-1	36팀	115명	공학·자연·인문·사회·예체능
2024-2	60팀	226명	공학·자연·인문·사회·예체능
2025-1	30팀	90명	공학·자연·인문·생활과학 등
2025-2	20팀	60명	공학·자연·인문·사회·예체능
합계	146팀	491명	전 학문 분야 참여

■ 핵심 운영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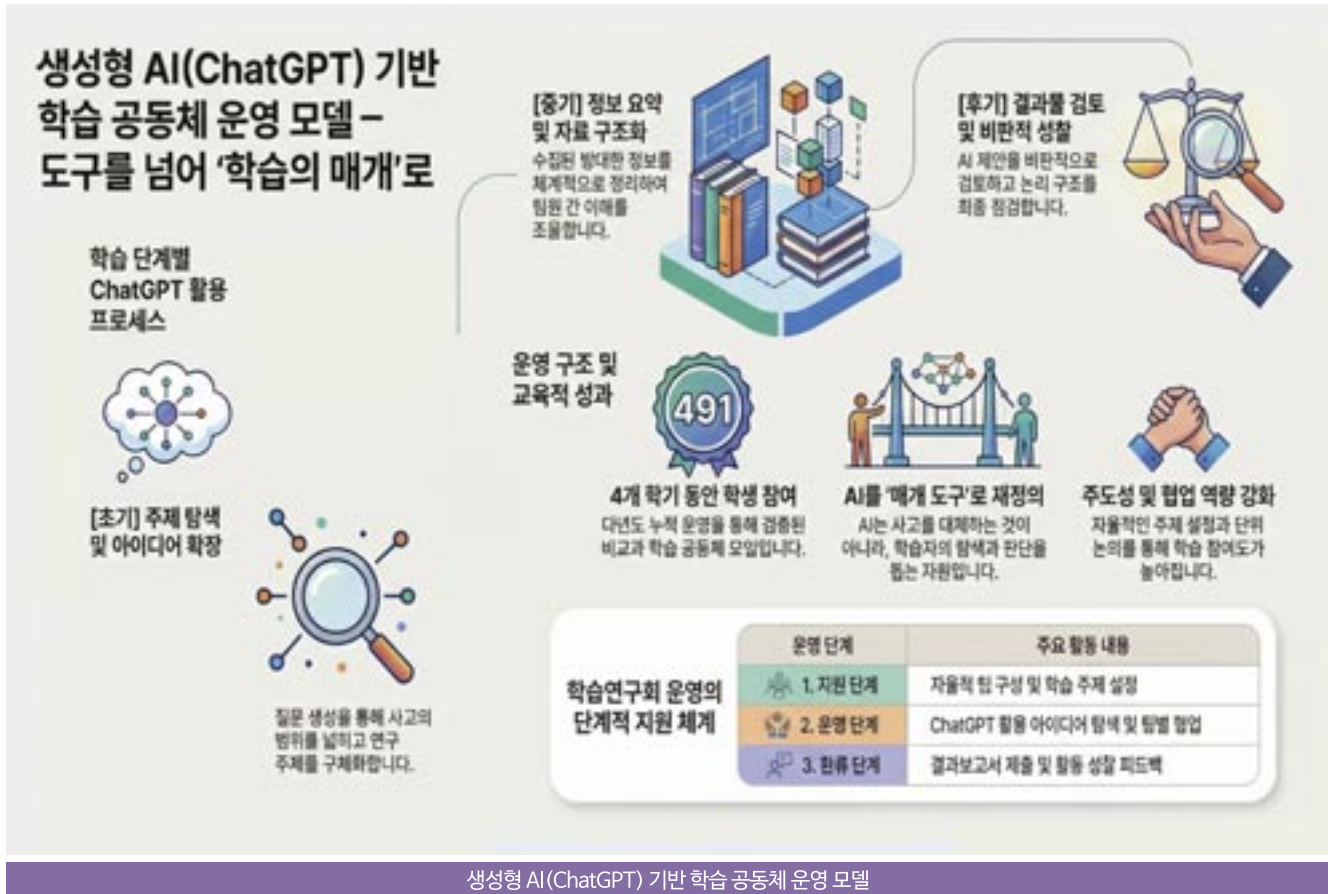
첫째, ChatGPT의 ‘매개 도구’ 활용 모델을 정립하였다. 학생들은 ChatGPT를 결과물을 자동 생성하는 도구가 아니라 학습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매개 도구로 활용하였다. 학습 단계별 활용 양상은 아래 표와 같다.

학습 단계	주요 ChatGPT 활용 방식	활용 팀 비율
학습 초기 (주제 탐색)	연구 주제 키워드 도출, 관련 문헌 검색·요약	60.1% / 51.4%
학습 중기 (자료 정리)	수집 자료 요약·재구성, 코드 작성·디버깅	54.7% / 48.0%
학습 후기 (검토·성찰)	문장 표현·문법 교정, 결과물 논리 구조 검토	65.3% / 45.3%
성찰 영역	AI 활용 한계 및 윤리 자발적 성찰	25.7% (38팀)

둘째, 자율·협업·성찰의 학습공동체 모델이 작동하였다. 학생들은 ChatGPT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팀 회의를 통해 교차 검토·재구성하는 양상을 보였다. 공과대학 한 팀은 ChatGPT 요약에서 누락된 수치 데이터를 원문에서 직접 보완하였고, 화학과 한 팀은 ChatGPT가 제시한 실험 방법이 조건과 맞지 않아 교수 면담 및 문헌 조사를 병행하여 최종 실험 계획을 수립하였다.

셋째, 25.7%의 팀(38팀)이 AI 윤리·저자성 성찰을 자발적으로 보고하였다. 비평가적(non-graded) 운영 구조는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AI 활용의 적절성을 성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심리학과 학생들은 최종 보고서에서 ChatGPT 기여 부분과 본인 추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하는 등, 정규 교과 성적 평가 구조에서는 나타나기 어려운 성찰적 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III 운영 구조와 교육적 의미



III 타 대학 확산을 위한 시사점

본 사례는 AI융합교육이 반드시 새로운 학과 신설이나 대규모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만 실현되어야 한다는 통념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제시한다. 비교과 학습공동체와 같은 유연한 운영 구조는 생성형 시 기반 융합교육을 실험·확산시키는 현실적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대학이 처한 제도적·인적 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실천 가능성이 높은 모델로 평가된다.

본 사업의 운영 경험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학습의 매개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① 학습자 주도의 자율적

주제 설정, ② 팀 기반 협업 구조, ③ 성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운 비평가적 환경의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생성형 AI는 학습자의 사고를 대체하지 않고 확장하는 교육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사업의 성과는 학술논문(KCI)으로도 게재되어 한국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 연구』 제95호(2026.4)에 게재되었으며, 향후 더 많은 대학과 교육자들이 각자의 맥락에서 생성형 AI 기반 학습공동체를 실험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글로벌 교양 교과목 개발, 다양한 교양 교과목 지원



김미선

차의과학대학교
차오름교양대학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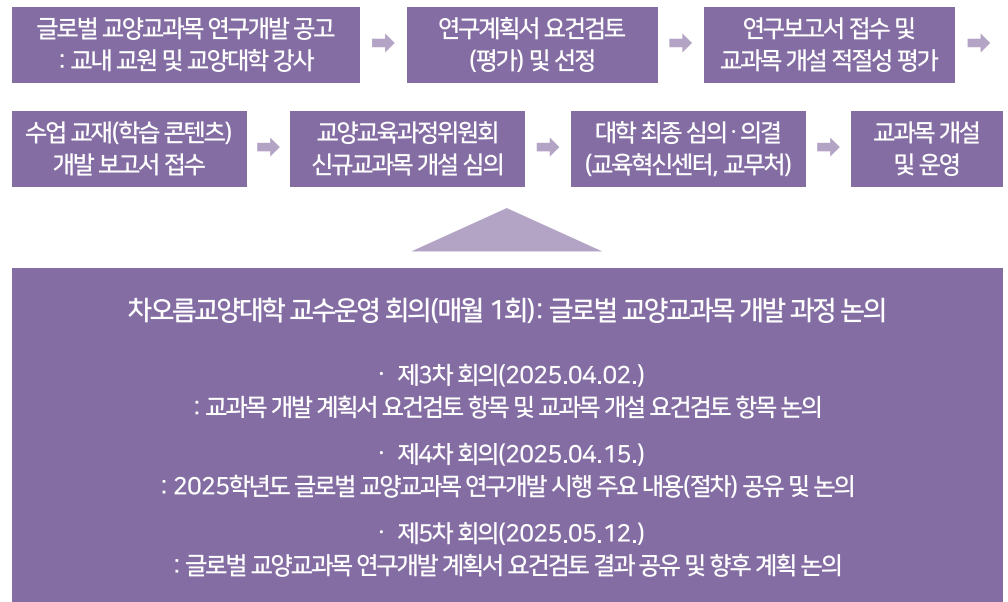
추진 배경

- 2025학년도 3월 차의과학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자율전공학부)에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입학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기초 교양(필수) 및 균형 교양(선택)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외국어 트랙으로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되는 교양교과목 수업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 관련 교과목을 개발하고 커리큘럼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내용

1)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균형 교양(선택) 개발 및 운영

- 졸업학점에서 전공 이수 학점 및 한국어 교양 학점 등을 제외하고, 균형 교양(선택)으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개설되어야 할 적정 학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2025학년도에 12개(총 24학점)의 글로벌 교양교과목을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교과목 질 관리를 위하여 연구계획서 평가, 교과목 개설 적정성 평가 등의 인증 장치를 마련하였고, 교양대학 상시 회의기구(교수회의)에서 글로벌 교양교과목 개발의 원칙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양질의 교과목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2025학년도 1년 동안 계획했던 12개 교과목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12개 교과목이 모두 정규 과목으로 개설되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해당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	글로벌 교양교과목 신규 개발 과목
[2025-1] 9개 교과목 신규개발	· 한국적 상상력: 감성과 창의로 읽는 K-콘텐츠(Korean Imagination) · 한국의 일상관찰(Korea's Dally Observations) · 한류 마케팅(Hallyu Marketing) ·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Global Business Communication) · 세계정치와 글로벌 경제(World Politics and Global Economy) · 인간생물학 소개(Introduction to Human Biology) · 서양철학 입문(Introduction to Western Philosophy: Ideas That Shaped the World) · 한류와 미디어 산업 인사이트(Korean Wave and Media Industry Insights) ·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이해(Intro of Spanish and Latin American Cultures)
[2025-2] 3개 교과목 신규개발	· 고전문학에서 배우는 윤리(Monster and Morality: Ethics in Classic Fiction) · 건강과 웰니스(Health and Wellness) · 동기부여 강화 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

2)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한국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다른 대학 자료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커리큘럼을 구상하였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수 운영회의
Step 1. 다른 대학 자료조사	가천대 외 10개 대학 교육과정 자료조사 ⇒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개괄적 프레임 구축	차오름교양대학 교수운영회의(매월 1회) :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과정 논의 · 제7차 회의(25.06.02.) : 다른 대학 현황 및 전문가 자문내용 공유 및 협의 · 제12차 회의(25.09.22.) : 한국어 교육과정 초안 논의
Step 2. 전문가 자문	외부 전문가 2인, 내부 전문가 1인 자문 실시 ⇒ 한국어 교육과정 초안 설정	
Step 3. 전문가 회의	신규 채용된 교원·강사 4명의 수시 회의 ⇒ 한국어 교육과정 최종안 구축	
Step 4. 차오름교양대학 교수 운영회의	⇒ 국어 교육과정 최종안 승인	

- 교수자는 총 4명으로 한국어교원자격증을 갖춘 초빙교원 1명과 강사 3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2026 학년도에는 전임교원 1명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이며, 전임교원 초빙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한국어 수업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1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까지 학기별 6학점(2학점×3과목)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구축하였습니다.

구분	과목명
1학년 1학기	[한국 생활을 위한 기초 의사소통 능력 함양] 초급한국어 I (듣기·말하기), 초급한국어 I (읽기·쓰기), 생활 한국어
1학년 2학기	[실생활에 초점을 맞춘 한국어 응용 능력 신장] 초급한국어 II (듣기·말하기), 초급한국어 II (읽기·쓰기), 한국어 화법과 의사소통
2학년 1학기	[대학 생활을 위한 한국어 능력 기초] 중급한국어 I (듣기·말하기), 중급한국어 I (읽기·쓰기), 한국어 발표와 스피치
2학년 2학기	[대학 생활을 위한 한국어 능력 강화] 중급한국어 II (듣기·말하기), 중급한국어 II (읽기·쓰기), 한국어 토론과 설득
3학년 1학기	[문법적 정확성과 심화 학습] 고급한국어 I (듣기·말하기), 고급한국어 I (읽기·쓰기), 한국어 문법과 독해
3학년 2학기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이에 기반한 언어 사용 실습] 고급한국어 II (듣기·말하기), 고급한국어 II (읽기·쓰기), 한국 문화와 언어 표현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 본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 적응과 정착을 위해 교양교육 과정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관련 교양과목뿐만 아니라 2학년 전공 진입을 위한 전공 탐색 과목 등을 개발하여 양질의 교양교육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 외국인 유학생이 2학년부터는 전공수업을 수강하게 되어 교양 교과로는 한국어 수업과 균형 교양(선택) 1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들이 고학년에 진학할 경우 교양교육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모색하여 시의적절한 교과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례로 한국 취업 및 정주를 위한 '미래설계' 교과목을 3학년 또는 4학년 중에 교양과목으로 신설하여 졸업 후의 진로 지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도전으로 성장하는 대학, 창신대학교의 챌린지 교육 생태계 구축



윤지원

창신대학교
교수학습혁신센터
센터장

추진배경 및 목적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학업 성취, 대인관계, 자기관리, 학습습관, 진로설계, 취·창업 준비 등 다양한 경험과 연결된다. 창신대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작은 실천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며, 이를 성장의 과정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챌린지'를 교육혁신의 실천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창신대학교의 챌린지는 학생과 교원이 일상 속에서 도전하고 실천하며 성장하는 교육문화이다. 학생에게는 마음건강, 학습역량, 진로 및 취·창업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성장 경로를 제공하고, 교원에게는 수업 설계와 수업 개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코칭 체계를 제공하였다.

본 사례는 학생 챌린지 프로그램과 교원 R.U.N. 코칭 챌린지를 연계하여 학생 - 교원 동반성장형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성장 경험을 확대하고, 교원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도전이 일상이 되는 대학 교육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운영 내용

1) 학생 챌린지: 마음 - 학습 - 진로 및 취창업을 잇는 3단계 성장 로드맵

학생 챌린지는 마음건강, 학습역량, 진로 및 취·창업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3단계 성장 로드맵으로 운영되었다. 1단계는 마음건강 챌린지, 2단계는 창의융합 챌린지, 3단계는 커리어 및 창업트랙 챌린지로 구성되었다. 이 구조는 대학생활 적응에서 학습 참여, 진로 설계, 취·창업 준비로 이어지는 학생 성장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마음건강 챌린지는 대학생활 적응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기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마음건강센터가 주관하여 자기돌봄, SNS 디톡스, 대인관계 개선 등 주제별 챌린지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습관과 정서 상태를 점검하고, 대학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건강한 마음을 성장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자기관리 경험을 축적하였다.

창의융합 챌린지는 교수학습혁신센터 주관의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전공별 지속적 도전과제 수행, 프로젝트 기반 협동학습, 문제해결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습 과정의 중요성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팀 활동을 통해 자료를 탐색하고, 문제를 정의하며,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 참여도를 높이고, 협업, 의사소통, 발표, 성찰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커리어(Career-UP) 및 창업트랙 챌린지는 취창업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진로 및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커리어 챌린지에서는 진로취업 준비 후기, 자기소개서 작성, 슛폼 영상 제작 등 진로 준비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창업트랙 챌린지에서는 교내외 창업 프로그램 참여,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활동보고서 및 최종소감문 제출 등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목표를 구체화하고, 취·창업 준비에 필요한 산출물을 제작하며, 자신의 성장 과정을 언어화하는 경험을 하였다.

2) 교원 챌린지: R.U.N 코칭 시스템

교원 챌린지는 수업역량 함양을 위한 R.U.N. 코칭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R.U.N.은 Ready, Up-grade, Next의 세 단계로 구성된 코칭 모델이다. 교수자의 생애주기와 수업 개선 요구를 고려하여 신임교원, 수업평가 하위교원, 전체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코칭과 수업 성찰 기회를 제공하였다.

Ready 단계는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신임교원과 선배교원 간 1:1 코칭을 통해 학교 문화와 교육 방식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수업 설계와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운영 방향을 안내하였다. 특히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교수자의 중요한 수업 태도로 제시하였다.

Up-grade 단계는 수업 평가 결과 하위 5%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멘토교원이 수업을 참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교수법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활동을 수행하였다. 교수자는 자신의 수업 역량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수업 운영 방식과 학생 참여 전략을 조정하는 기회를 가졌다.

Next 단계는 전체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동료 교원 간 상호 멘토링과 우수 교수법 공유를 통해 대학 전체의 교육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우수 수업사례와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교원 간 협력적 성장을 촉진하였다. 빠르게 앞서가는 연구자에서 함께 멀리 가는 교육자로 성장하는 공유의 리더십을 강조한 점이 특징적이다.

향후 계획

향후 창신대학교는 챌린지 교육 생태계의 안정적 운영과 확산을 위해 학생 챌린지와 교원 챌린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학생 챌린지는 마음건강, 학습역량, 진로·취창업 프로그램이 성장 단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정비하고, 학과 및 전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와 성장 수준에 맞는 도전 과제를 선택하고, 대학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성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교원 R.U.N 코칭 시스템은 참여 교원을 확대하고 우수 수업사례 공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신임교원, 재직교원, 전체교원을 대상으로 한 단계별 코칭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업 개선 경험을

교원 간에 공유함으로써 학생 참여형 수업과 수업혁신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창신대학교는 학생의 작은 실천이 학습과 진로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교원의 수업혁신이 학생 성공을 지원하는 챌린지 교육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창의융합챌린지 - 디지털도시건설학과



커리어챌린지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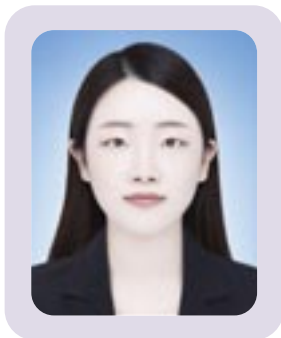


창업트랙챌린지 수상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카리스교양대학, AI 시대 교양교육 방향 모색 위한 성과공유 포럼 개최



강지은

창신대학교
카리스교양대학 /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연구원

카리스교양대학은 지난 1월 22일 ‘2025학년도 교양교육 성과공유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 교양교육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교양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학 현장의 다양한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AI 기술이 교육 전반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양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으며, 전국 대학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이지선 학장의 개회사와 최경희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이지선 학장은 AI 기술의 활용이 단순한 도구적 접근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 중심의 가치와 융합적 사고를 함께 길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교양교육이 지닌 본래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추 수 있도록 교육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경희 총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교육 환경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AI 교양교육이 새로운 교육 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 중심 교육의 실현과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양교육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번 포럼이 그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윤혜경 회장과 부·울·경 지역대학교양교육협의회 정은상 회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포럼의 공식적인 의미와 협력적 성격을 한층 강화했다.

기조강연에서는 한동대학교 손화철 교수가 ‘인공지능 시대, 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손 교수는 현재 사회가 하이퍼리드(Hyperlead)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보와 지식이 과잉된 환경 속에서 기존의 정답 중심 교육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문제를 정의하고 질문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기술이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간 고유의 사고력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으며, 그 핵심은 ‘질문하는 힘’과 비판적 사고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이 단순한 기술 활용 능력 향상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후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는 각 대학의 AI 교양교육 운영 사례와 성과가 공유되었다. 먼저 동명대학교 정지언 학부교양대학장은 AI 리터러시 기반 교양필수 교과 설계 원리와 실제 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AI 시대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커리큘럼 구성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학생들이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제대학교 김희란 교수는 ‘챗GPT 이해와 활용’ 교과 운영 성과와 과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발표했다. 해당 과목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학습 변화와 참여도, 그리고 교육 효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며 AI 활용 교육의 실제적인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짚었다. 이를 통해 향후 교과 운영의 개선 방향과 확장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었다.

또한 창신대학교 윤지원 교수는 ‘AI와 창의적 소통’ 교과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해당 교과는 AI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사고와 표현 능력 향상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실제 수업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AI를 매개로 한 새로운 소통 방식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윤 교수는 이러한 교육 방식이 향후 교양교육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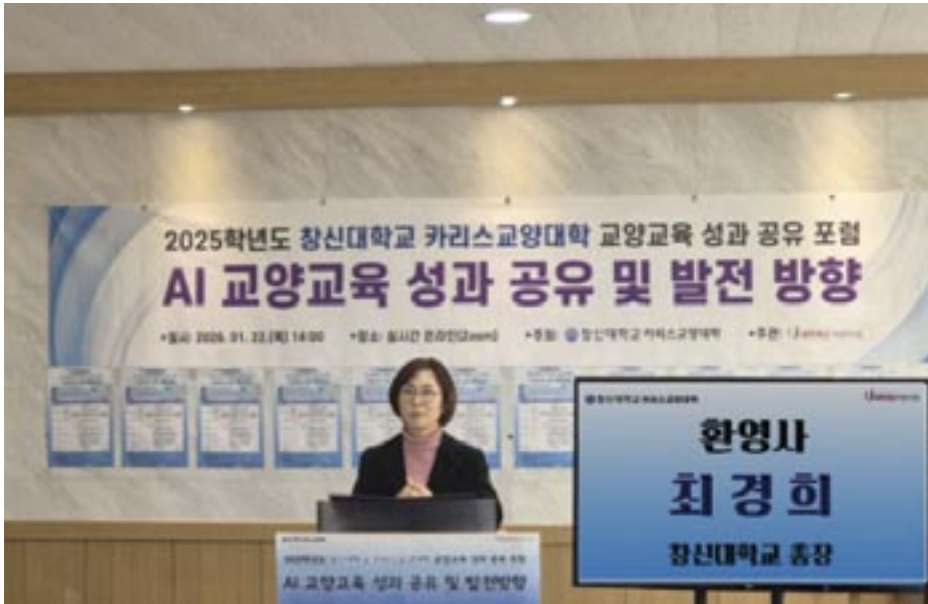
포럼의 마지막 순서에서 이지선 학장은 이번 행사가 AI 교양교육의 실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교양 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AI 시대에 부합하는 교양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여 교양교육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양교육이 단순한 기초 교육을 넘어 융합적 사고와 인간 중심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포럼사진 1



포럼사진 2



포럼사진 3



포럼 포스터



포럼 사진 4



포럼 사진 5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SDGs 실현을 위한 대학생 해외봉사 운영 사례



김민선

총신대학교
지역사회봉사센터
센터장

추진배경 및 방향성

총신대학교는 국내외 이웃을 위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운영하였다. 해외봉사활동 기획은 교육부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총신대학교의 특수교육 전문성과 복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2025학년도 해외봉사활동은 윤회사상과 공산주의 체제의 생산노동 중심 가치관 등의 영향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며, 특수교육 전문성과 지원 체계 또한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라오스 지역의 현실에 주목하여 기획되었다. 이에 단순한 일회성 봉사활동을 넘어, 현지 특수교육 환경의 실질적 개선과 지속 가능한 변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특히, 봉사활동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라오스 발달장애아동 특수학교인 '비엔티안 드림스쿨 (Vientiane Dream School)'과 협약 체결 및 간담회 진행을 통해 하계와 동계, 두 차례에 걸쳐 해외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개요 및 주요 내용

대학생 해외봉사팀은 1차(하계) 해외봉사에서 특수교육 환경과 전문성이 열악한 라오스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아동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미술, 과학, 위생교육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활동은 발달장애 아동의 창의력과 자기효능감 향상, 소근육 발달 및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특히 단순한 일회성 체험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현지 특수교육 교사들과 함께 공동수업(Co-Teaching)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현장 적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지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직접 이해하고 향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어 2차(동계) 해외봉사에서는 발달장애아동 직접 지원 중심의 교육봉사 활동에서 나아가, 현지 특수교육 현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립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비엔티안 드림스쿨 현지 특수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 형태의 「특수교육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특수교육 세미나」와 「수업 공동 기획 및 운영」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현지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교육 모델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의 특수교육 교수·학습 방법과 실제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현지 교사들과 함께 수업을 공동 설계·운영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현지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수 전략과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라오스 국가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환경을 구축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2025학년도 하계 해외봉사	2025학년도 동계 해외봉사
 활동국가/ 활동기관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비엔티안 드림스쿨(Dream School, Vientiane):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활동기간	2025.07.07.(월) - 2025.07.17.(목)	2026.01.15.(목) - 2026.01.25.(일)
 활동목표	1. 장애아동의 지속가능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 활동 지원 2. 학부요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장애인식개선	1.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교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2. 교육청과의 포럼을 통한 공·사립학교 장애인식개선 및 정책 협력 강화
 주요 프로그램	① 교육봉사 프로그램 ② SOGs 연계봉사(환경캠페인, 물보장 등) ③ 문화교육 레달리데이	① 현지교사 워크숍 (문화 교육 기반의 연문가 휴대용 형상 워크숍, 장애아동 교육 이론 및 학습 운영 세미나, 현지 맞춤형 커리큘럼, 공동 기획 및 전수, 교사 주도성 강화를 위한 교수 프로젝트) ② 교육포럼 ③ 협력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봉사 프로그램

그에 더 나아가, 현지 발달장애 아동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과 국제적 협력 기반 마련에도 힘썼다. 이를 위해 라오스 현지 교육기관 및 관계자들과 함께 「국제협력 교육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포럼에는 라오스

구 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하여 D-MAS 센터, 라오스 어린이병원 관계자와 36개 공립·사립학교 교장 및 교사들이 참여하였다. 교육포럼은 발달장애아동 지원 체계와 특수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교육환경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한국의 특수교육 지원 사례와 교수·학습 방법을 소개하는 한편, 라오스 현지의 교육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발달장애 아동 지원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총신대학교는 단순한 해외봉사를 넘어, 현지 교육기관과의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아동 교육을 위한 국제 교육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글로벌 특수교육 협력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교육봉사 프로그램



현지교사 워크숍



교육포럼

▮ 활동성과

총신대학교는 본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단순한 단기 봉사활동을 넘어, 현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특히,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지 교사를 교육의 협력자이자 수업의 주체로 세우는 데 중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현지 특수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과 공동수업(Co-Teaching)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특수교육 교수·학습 방법이 일회성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육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교육청 및 교육관계자와 연계한 국제 교육포럼을 개최하여 공립·사립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장애 인식 개선과 특수교육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에 대한 국제적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속가능한 글로벌 교육협력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주관한 「2025년도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에서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으며, 우수사례로 공유되어 타 대학의 해외봉사 프로그램 운영 방향과 사회공헌 모델 구축에도 모델링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총신대학교 해외봉사활동 성과

현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으로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교육협력 모델 실현

1. 추진 방향



단기 봉사활동을 넘어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



현지 교사를 교육하
협력자이자 수업의 주체로
세우는 프로그램 운영



워크숍 및 공동수업(Co-Teaching)
도입으로 한국의 특수교육 교수·학습
방법의 지속적 적용·확산 기반 마련



현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

2. 주요 활동 및 성과

장애아동 직접 교육 지원



- 미술, 과학, 위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의력, 자기효능감, 소근육 발달,
학습동기 향상 교육 참여 기회 확대



장애아동의 성장과 전인적 발달 지원

현지 교사 역량 강화 및 공동 협력



- 현지 특수교육 교사 대상 워크숍 및 세미나 운영
- 공동수업(Co-Teaching) 및
수업 공동 설계 운영
- 한국의 특수교육 교수·학습 방법 공유 및
현지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교사 전문성 향상 및 자립적 교육 운영 역량 강화

국제 교육포럼 및 네트워크 구축



- 교육청 및 교육관계자와 연계한
국제 교육포럼 개최
- 공·사립학교 관계자 참여
- 장애인지 개선 및 특수교육 지원
발달 논의



국제적 협력 기반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3. 확대 효과 및 의의



현지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변화 창출



교육 전문가와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모델 구축



특수교육에 대한
국제적 협력 기반 확대

지역사회의 연계한
글로벌 교육협력
모델 제시

4. 주요 성과 및 수상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주관
「2025년도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최우수 프로그램 선정



우수사례로 공유되며
타 대학의 해외봉사 프로그램
운영 방향 및 사회공헌 모델
구축에 긍정적 영향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지속가능성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교육협력 모델로
높은 평가



최우수 프로그램 선정

2025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최우수 프로그램 수상



우수사례발표



성과공유회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포항공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구성원 아이디어 기반 과제 고도화를 위한 실행 연계 및 부서협의 운영 사례



이예원

포항공과대학교
혁신사업단 대학혁신사업팀
연구원

추진배경 및 목적

포항공과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성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대학 운영 및 교육 혁신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학혁신 성장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단순 제안 발굴에 그치지 않고,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중심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중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높은 제안을 대상으로 관계부서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신규 프로그램 도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제 고도화를 위한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이디어 기반 과제 고도화 추진

포항공과대학교는 구성원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가운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방향성과 연계 가능한 제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서 협의를 실시하였다. 협의 과정에서는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기존 프로그램과의 연계 여부를 검토하고, 단계적 사업 반영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구분	아이디어공모전 제안명	관계부서	주요 협의 내용
1	POSTECH 행정 AI 코파일럿 구축을 통한 스마트 행정 인프라 확충	정보기술팀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코파일럿 구축 가능성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검토
2	문제 해결 기반 경쟁형 학부 연구 프로그램	교육혁신센터	문제 해결 기반 학부 연구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 및 기존 학부생 연구참여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 협의
3	'나의 길'에서 '우리의 동력'으로 : POSTECH LIFE 포스터 발표회	무은재학부행정팀 교육혁신센터	연구 참여 프로그램과 발표회 간 연계 방안 및 연구 경험 공유·성과 확산을 위한 운영 방향 협의

특히 이번 협의에서는 AI 기반 행정 혁신, 학생 참여형 연구 프로그램 확대, 연구성과 공유문화 확산 등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방향성과 연계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논의되었다. 또한 단순 검토 수준을 넘어, 기존 세부과제와의 접목 가능성 및 실제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실행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이디어 기반 과제 고도화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

■ 실행 기반 마련 및 협업체계 강화

이번 부서협의를 통해 포항공과대학교는 구성원 아이디어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세부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총괄부서와 관계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실행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아이디어가 단순 제안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업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디지털 전환 기반의 스마트 행정, 학부 연구 활성화, 학생 성과 공유문화 조성 등 대학의 중장기 혁신 방향과 연계 가능한 과제들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Bottom-up 방식의 대학혁신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포항공과대학교는 앞으로도 구성원 아이디어 공모전과 연계한 과제화 컨설팅 및 관계부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제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부과제에 반영하고, 대학 운영 및 교육 혁신과 연계한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AI·디지털 전환, 학생 참여 확대, 교육혁신 등 미래지향적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원 참여 기반의 대학 혁신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고자 한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다전공 활성화를 위한 2026 KBU 진로박람회



신 군

한구성서대학교
혁신사업단
연구원

한국성서대학교(KBU) 캠퍼스에 새로운 학문적 교류의 장이 열렸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단일 전공에 갇히지 않고 폭넓은 시야를 가진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6 KBU 진로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특히 '다전공(복수·연계전공)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삼아 학과 간의 장벽을 낮추고 학생 스스로 미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7개 학과가 빚어내는 무한한 시너지

우리 대학의 자랑인 7개 학과 성서학과, 사회복지학과, 영유아보육학과, 간호학과, AI융합학부(인공지능학과, AI휴먼서비스융합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가 모두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학과별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부스 운영으로 눈길을 끌었다.

각 학과의 부스는 전공 교수 1명 이상과 재학생 2~3명으로 구성되어 심도 있는 밀착 상담을 진행하였다.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타 전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성 있는 소개, 학년별 융합 교육과정, 진로 로드맵, 관련 자격증 등의 내용을 담은 맞춤형 자료를 준비하여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사회복지학과 참고자료



영유아보육학과 참고자료

성과사례 공유 및 참여자 소감

이번 박람회에는 총 200여 명의 재학생이 참석하여 다전공 융합에 대한 교내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전공 선택권 확대와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7개 학과의 전반적인 정보는 물론, 복수전공 및 부전공 등 다전공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여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인 전공 설계 환경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현재의 주전공에 다른 계열(예: 성서학+사회복지학, 성서학+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등)을 융합하여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박람회 부스를 직접 운영한 교수진 및 재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이들은 “타 학과 학생들의 생생한 관심사를 직접 들으며 소통할 수 있어 유익했다”는 소감과 함께 “융합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했으며, 앞으로 우리 학과의 전공 수업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지 구체적인 힌트를 얻었다”고 긍정적인 후기를 전했다.

상담에 참여한 학생들 역시 “평소 눈여겨보던 타 전공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했다”, “평소 다가가기 어려웠던 타 학과 교수님들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궁금한 점을 묻고 조언을 구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진로박람회 부스 영유아보육학과 상담 장면



진로박람회 부스 AI융합학부 상담 장면

향후 계획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성공적인 개최를 이뤄낸 전공 박람회는 끝이 아닌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다. 한국 성서대학교는 이번 박람회에서 확인된 학생들의 높은 학구열과 융합 전공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다전공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학사 제도 개편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5개 학과의 훌륭한 인프라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다재다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의 요구에 기반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다전공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학업 회복을 넘어 LEARNING HIGH - 오늘은 나도 학사경고 탈출 장학금 프로그램 -



오승재

한남대학교
교무교육혁신처
교수학습원격교육센터
담당

▮ 프로그램 추진 배경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실질적인 학업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한 보상을 통해 학업 동기를 고취하고, 학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했습니다.

또한, 학사경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실질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학사경고 유발 요인을 정량적 데이터와 지표로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프로그램의 추진 당위성과 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학업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탈락 위험군 학생들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포기과 중도 탈락은 대학 충원율 하락으로 이어져 대학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사경고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해 원인을 파악하고 학생들을 구제함으로써,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대학의 재정 지표를 안정화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프로그램 연계 운영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업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핵심 단계를 연계하여 운영되었습니다.

첫째, 온라인 교육 강화 프로그램인 ‘스마트한 대학생’을 통해 학사경고자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특히 학습 역량 강화 콘텐츠와 함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강좌를 도입하여 교육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둘째, 멘토 교수 면담 프로그램인 ‘LEARNING HIGH’를 통해 학과 차원의 밀착형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학생이 학사경고를 받게 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학습법 프로그램 및 학과 자체 프로그램 등 학업 복귀를 위한 맞춤형 지도 대책을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면담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당위성을 검증했으며, 이는 향후 고도화된 후속 프로그램을 개설하기 위한 방향성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셋째, 해당 학기 학사경고 탈출 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 동기를 고취하고 지속적인 학업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사경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학업 복귀와 대학 생활 적응을 다각도로 지원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성과



연도	학기	프로그램 참여 인원 (A+B+C)	학사경고 탈출(A)	성적향상도 평균	연도별 학사경고 인원
2024	1	25	25	1.76	759
	2	33	27	1.61	
2025	1	49	42	1.53	751
	2	56	38	1.73	

본 프로그램은 참여율과 성적 향상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프로그램 참여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2024학년도 총 58명(1학기 25명, 2학기 33명)에서 2025학년도 총 105명(1학기 49명, 2학기 56명)으로 약 81%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체 학사경고 인원은 2024학년도 759명에서 2025학년도 751명으로 비슷하게 유지되었으나,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학사경고를 탈출한 인원이 상승했습니다.

둘째, 성적 향상도 면에서는 전년 수준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향상도 평균은 1.53으로 전년 동기(1.76) 대비 약간 낮아졌으나, 2025학년도 2학기에는 1.73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2024학년도 2학기보다 더 높은 성적 향상도를 기록한 것으로, 참여 인원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평점 향상 폭은 전년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음을 보여줍니다.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장애인 이동권을 주제로 한 인권토론대회 개최, 대학 내 인권 담론의 장 마련



장윤희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주임

추진 배경 및 목적

한림대학교 인권센터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 역량을 함양하고자 2026학년도 제1회 「인권토론대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사회적으로 다양한 인권 이슈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대학 구성원들이 사회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학생 참여 중심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CORE'와 공동 주관·주최를 통해 학생 주도의 인권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사회적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토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운영 내용

이번 대회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하철 시위는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대학생의 시각에서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바탕으로 논리적 근거와 인권적 관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준비하였다.

대회는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두 달간 운영되었으며, 1차 예선 입론서 심사와 2차 본선 토론대회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가대상은 본교 재학생으로 개인 또는 2인 이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차 예선에서는 참가자들이 제출한 입론서를 바탕으로 논리성, 주제 이해도, 토론의 적합성 및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선 진출 4개 팀을 선정하였다. 이후 2026년 5월 6일 교내 국제회의실에서 본선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CEDA 토론 방식으로 찬성측 2팀과 반대측 2팀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번 대회는 우리 대학에서 최초로 시행된 인권토론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총 17개 팀이 참가하며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보였다. 참가 학생들은 자료 조사와 논거 구성, 반론 제시 과정을 통해 인권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였으며, 실제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심사 결과

본선 대회 결과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1팀이 선정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상장과 시상금이 수여되었다.

심사위원단은 참가팀 모두 논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논거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토론을 진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번 대회가 대학 내 건전한 토론 문화와 인권 담론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향후 계획

이번 인권토론대회는 최초 시행임에도 예상 이상의 학생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며 사업 운영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특정 학과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만큼,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과별 홍보 확대와 참여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인권토론대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정례화하여 대학 내 인권문화 확산과 토론 중심 인권교육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사회적 인권 이슈를 주체적으로 탐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 중심 비교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참가자 대회 소감 발췌

이번 인권토론대회에서는 장애인 이동권과 시민의 불편 사이의 기본권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준비하며, 사회 문제를 한쪽 시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자료 조사와 반박 준비 과정 속에서 사고력과 발표 능력이 성장했으며, 함께 고민하고 준비한 팀원들과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사회과학대학/법학과/김OO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해’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장애인을 단순히 도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같은 시민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경쟁보다 공존의 가치를 아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경영대학/금융재무학과/윤OO -

이번 인권토론회에 참가하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철학적·법적 관점에서 깊이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찬반 입장을 모두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다각도로 바라보는 시각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 사회과학대학/사회학과/김OO -

대회 사진





성과사례

Performance case

교수 - 졸업생 현직자 - 재학생 멘토의 삼각 연계 전공자율선택 지원 프로그램 : 한성대학교 '트라이앵글 전공트랙팀상담' 운영



강석남

한성대학교
자율전공설계지원센터
교육연구교수

한성대학교는 자유로운 전공 선택을 통한 융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2017년 국내 최초로 '전공 트랙제'를 도입했다. 전공트랙제는 모든 신입생이 단과대학 단위로 입학하여 정원 제한이 없는 다양한 '트랙'을 2개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성대 학생들은 1년 간의 전공탐색 기간을 거쳐 2학년 진입시 1트랙은 자신이 입학한 단과대학 내에서, 2트랙은 교내 개설된 모든 트랙으로 진학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성대는 전공트랙제를 통해 전공자율선택제 유형2(1트랙)와 유형1(2트랙)의 선택지를 모든 신입생에게 제공한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전공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성대학교는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1대1 평생지도 교수를 배정하여 전공선택 지도 및 대학생활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공트랙별로 트랙 진학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속 교원의 팀상담을 운영해왔다. 이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2025학년도 2학기부터 '트라이앵글 전공트랙팀상담'을 기획 및 운영하여, 체계적인 전공트랙 교육과정 소개 및 졸업 후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III. 트라이앵글 전공트랙팀상담 개요

AI기술의 발달과 보편화에 따라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 전반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덧붙여 전공자율선택제로 대표되는 모집단위 광역화는 자유로운 전공선택의 제도적 보장과 함께, 학생 소속감 저하 및 대학생활 부적응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전공선택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의 해당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와 함께,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경력 개발 경로, 대학생활 적응 및 소속감 증대라는 세 가지의 과제를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트라이앵글 전공트랙팀상담은 전공트랙별 소속 교수, 트랙 출신 졸업생 현직자, 현재 트랙에 재학 중인 재학생 멘토 3주체가 해당 전공트랙 진학을 희망하는 신입생 및 트랙변경 희망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강 및 간담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우선 소속 교수는 전공트랙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과 커리큘럼, 교육과정이 표방하는 졸업 후 진로 및 유관산업 전망을 담당한다.

졸업생 현직자는 자신의 구체적인 직무경험 및 경력 개발 경로, 직무 필수 역량 등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한성대 재학 중 이수한 교과 및 비교과프로그램이 어떻게 자신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특히 한성대 졸업생으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출발점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로개발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재학생 멘토는 자신의 전공 선택 노하우, 대학생활 경험, 전공트랙별 특색을 살린 학생 활동 및 선후배 네트워크를 소개함으로써 전공트랙 진입 이후의 대학생활 적응에 일조한다. 결과적으로 트라이앵글 전공트랙팀상담은 전공트랙별 3주체 간담회를 통한 자기주도적 전공 선택을 지원하고, 졸업생 현직자의 경력 경로와 교수 및 선배 재학생의 조언을 더해 타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실질적인 진로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 트라이앵글 전공트랙팀상담 운영 성과



UX/UI 트랙 졸업생 현직자 특강(25.10.21.)



회계재무경영 트랙 재학생 멘토 특강(25.10.17.)

트라이앵글 전공트랙팀상담은 2025학년도 2학기 한성대의 진로·전공탐색 교과 <전공탐색길라잡이>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시범 운영되었다. 매주 화·금요일 3주간 6회, 회차별 4~6개 전공트랙별 팀상담이 운영되어 교수 38명, 졸업생 32명, 재학생 41명이 특강자로 참여했으며, 중복포함 578명의 학생들이 전공트랙팀상담에 참석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 참석 학생 대상 만족도(1~5점) 조사 결과 전공트랙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4.25로 나타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 학생들의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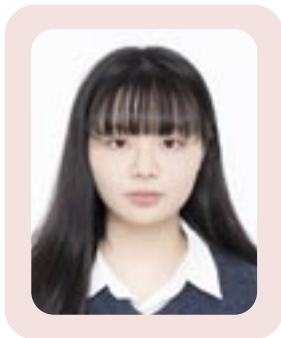
▮▮ 트라이앵글 전공트랙팀상담 고도화 방안

한성대학교는 25학년도 2학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트랙팀상담을 학기당 1회, 연 2회 운영하여 특히 전공트랙제 신입생들의 전공탐색을 정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내 개설된 모든 전공트랙에서 신입생들의 전공탐색을 지원할 '트랙 홍보대사'를 선발하고, 트랙 홍보대사가 전공트랙팀 상담에 재학생 멘토로 참여하여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트랙 홍보대사는 간담회 직후부터 희망하는 참석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트랙별 특색을 갖춘 소규모 트랙 멘토링을 조직 및 운영하여, 전공트랙팀상담과 소규모 멘토링의 연계를 통한 밀착형 전공 선택 지원의 핵심 매개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나’다운 순간을 찾아서



박승원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아동청소년교육학과
학생

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제31회 글쓰기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이 공모전은 <가장 ‘나’다운 순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저는 글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경험과 감정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다양한 비교과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해왔지만, 그중에서도 이 공모전은 단순한 활동 이상의 의미로 오래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모전 공고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과연 내 이야기가 하나의 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하거나 대단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글쓰기는 단순히 생각을 적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과 경험을 꺼내 정리하여 적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활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던 저는 평소 쉽게 꺼내지 못했던 제 대학생활 이야기를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글을 쓰기 시작하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또 그 경험 속에서 제가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나열해나갔지만, 계속해서 내용을 수정하고 읽어보는 과정 속에서 단순한 사건 자체보다 그 안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읽어보면서 제 진심이 자연스럽게 담길 수 있도록 원고를 수정해나갔습니다.

특히 글을 완성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대학 입학 이후의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두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타지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도 쉽지 않았고, 학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하다보니 혼자 불안함을 느끼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변화해왔다는 사실을 글쓰기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지나쳤던 순간들도 다시 떠올려보니 그 안에는 늘 고민과 노력, 그리고 작지만 의미 있는 성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공모전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다보면 학업과 아르바이트, 여러 일정들을 반복하며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늘 해야 할 일들을 해내기에 바빴고, 정작 제 감정이나 생각을 천천히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는 동안만큼은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지금의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는 과정은 단순히 원고를 완성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해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을 쓰다가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같은 부분만 수정을 반복하기도 했고, 이미 작성한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제출 마감이가까워질수록 더 완벽하게 써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원고를 제출하기 직전까지 여러 번 내용을 수정하며 문장을 다듬었고, 그 과정 속에서 단순히 ‘잘 쓴 글’을 만드는 것보다 제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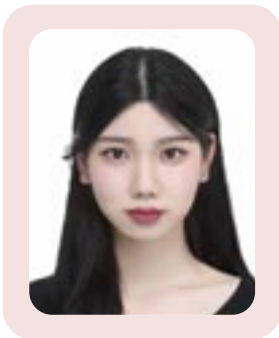
비록 기대했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공모전에 참여한 경험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라 제 경험과 감정을 스스로 정리하고 표현해보는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지만, 완벽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노력하고 도전해보는 경험 자체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더 크게 남은 것은 스스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정리 해냈다는 뿌듯함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과를 떠나 직접 부딪히고 경험해보는 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배움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쓰기 공모전은 저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지나온 경험들을 정리하며 하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완성해낼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결과에만 얽매이기보다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며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인생을 아름답게, 원더풀 다이어리!



김예원

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 (행정공공기관학과)
학생

▮ 프로그램 동기와 과정

4학년을 맞이하며, 마지막 대학 생활이라는 생각에 새로운 도전에 목말라 있던 제게 대학혁신사업단 서포터즈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이후 MBC와 함께하는 라디오 캠페인 ‘원더풀 다이어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설렘보다는 걱정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녹음까지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느껴졌고, 머릿속 다이어리에 추상적으로 떠다니던 경험들을 꺼내어 한 편의 라디오 원고로 완성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 생활 동안 겪은 세 가지 소중한 순간들을 원고에 담아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원고에서는 행정공공기관학과 학생으로서 청년 정책을 직접 기획하며 “내가 만든 정책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졌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딱딱한 서류 작업으로만 생각했던 행정이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원고에는 장애인 봉사활동을 하며 느낀 부끄러움과 배움을 담았습니다. 평소 당연하게 오르내리던 짧은 계단이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벽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나의 편안함에서 잠시 고개를 돌려 타인의 불편함을 살피는 행정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손에 닿지 않아도 끈기 있게 쫓아갔던 벚꽃잎처럼, 당장 눈앞에 결과물이 없더라도 꿈을 향해 달리는 우리 모두의 열정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어 내렸습니다.

이 세 가지 경험들과 생각을 온전히 제 목소리로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녹음 날이 다가올수록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라디오 체험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야 하는 ‘소통의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녹음을 진행 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평소보다 입을 크게 벌려 또박또박 말해야 했고, 발음과 호흡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쏟아야 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여러 번의 수정과 재녹음을 거쳐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해 주신 아나운서님의 섬세한 피드백과 따뜻한 격려 덕분에 무사히 녹음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후기

‘원더풀 다이어리’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저 자신의 가능성을 마주하게 해 준 소중한 경험입니다. 방송국 문을 열기 전에는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머릿속이 복잡했고, 녹음 부스 안에서는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껴져 작아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는 대신 직접 제 목소리를 들으며 부족한 부분을 고쳐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라디오에서 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은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처음으로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저에게 이번 활동은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부딪힐 수 있게 힘을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전의 저는 시작도 하기 전에 걱정부터 앞서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부족하더라도 부딪혀보는 도전하는 자세의 중요함을 다시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노력과 반복이 결국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이 값진 경험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마주할 문 앞에서 용기를 내 문을 열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원더풀 다이어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 학교생활을 하나씩 떠올리고 되짚어보는 과정은 제게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반복되는 학교 생활과 지루하다고만 생각했던 과제와 수업으로 학과 생활에 대해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이 의미 있는 과정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쓰기 위해 그동안 지나온 시간을 천천히 복기하다 보니, 그 안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 한 감정들과 추억,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특별한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흘려보냈던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오래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주MBC와 함께한 ‘원더풀 다이어리’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원광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이 지향하는 지역사회 연계와 상생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의미를 몸소 느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더풀 다이어리’는 제 인생을 한층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대학혁신사업단 담당자님들과 MBC 이충훈 아나운서님, 지원해주신 학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MBC 방송국 단체사진



MBC 방송국 투어

학생사례

Student case

소통에서 변화까지, 학생이 직접 만든 의견수렴 행사



김채이

인천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학과
학생

작은 의견이 학교의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배우다!

▮▮ “학생들의 의견이 실제 학교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한 번쯤은 “이 행사가 왜 필요한 걸까?”, “학생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긴 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익투스 서포터즈는 바로 그 물음에서 출발했습니다. 학생들의 실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의견수렴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학생과 학교를 더 가깝게 잇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 참여를 이끌기 위한 고민

행사를 준비하며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학생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을까?”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전달할 통로가 부족하다면 학생들에게 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입생의 경우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체를 모르거나, 관련 정보를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익투스 서포터즈는 의견수렴 행사와 함께 SNS 이벤트를 병행하여, 학생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행사 준비 과정에서는 단순히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안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시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했습니다. 딱딱한 사업 설명보다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

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으며, 설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 수정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홍보는 단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행사 약 2주 전 포스터로 1차 홍보를 시작했고, 3일 전에는 숏폼 영상으로 관심을 유도했으며, 당일에는 에브리타임 게시글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단발성 홍보에 그치지 않기 위해 서포터즈 SNS 계정도 함께 알리고, 상품 증정 이벤트를 병행하며 앞으로의 활동 기반도 함께 다졌습니다.

행사 전 업로드한 SNS 콘텐츠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며 실제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준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학생들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반응을 남기는 모습을 보며 단순한 홍보를 넘어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수렴 행사를 위한 사전 모임

▮ 학생들의 참여로 이어진 의견수렴 행사

이번 의견수렴 행사에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며 기대보다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홍보와 이벤트를 병행한 결과, 역대 가장 높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으며 서포터즈 계정 팔로워 역시 재학생의 약 13% 수준까지 늘어나 지속적인 연결 고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점은 단순한 이벤트 참여를 넘어,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꺼내고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 참여는 자연히 따라온다는 것을 이번 행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행사 현장에서 만난 진짜 이야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어요”

행사 당일에는 오프라인 부스를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직접 의견수렴 행사 참여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다 잠깐 구경하고 가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거나 SNS를 보고 직접 찾아오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학생들의 솔직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학생 참여형 행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좋겠어요” 같은 구체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설문 결과에서도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와 진로·취업 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자체보다 홍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를 언급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알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CCU 대학혁신지원사업 의견수렴 행사 사진

▮ 의견수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환류’: 학생 의견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다

이번 활동을 하며 가장 의미 있었던 부분은 학생들의 의견이 단순히 수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개선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 진로·취업 프로그램 개선,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견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결과를 다시 공유하고 다음 사업 운영에 반영하는 환류 과정이 갖춰져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의 한마디가 실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활동을 통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작은 의견이 만드는 대학의 변화

이번 익투스 서포터즈 활동은 단순한 홍보 활동을 넘어,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와 학생을 연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학교 프로그램이 이미 정해진 것이고 학생들은 그저 참여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수렴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실제 프로그램 개선과 학교 변화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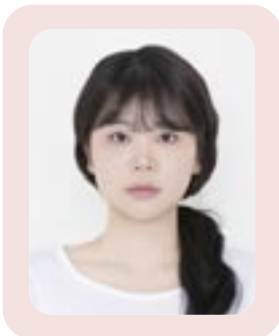
이번 활동을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정보를 접할 기회와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이 학생 참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알고,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서포터즈의 역할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내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다”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단순한 ‘학교 사업’이 아닌, 자신의 대학생활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바라보게 되길 기대합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안경 너머로 바라본 전공 탐색의 의미 2026 JJ MAJOR FAIR: [전.탐.시] 전공 탐색 시간



신보민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공연예술학과
학생

행사 개요

지난 2026년 4월 29일(수),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교육혁신본부 주최 및 주관으로 「2026 JJ MAJOR FAIR: [전.탐.시] 전공 탐색 시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유전공학부 및 통합모집 단과대학 소속 2026학번 신입생, 그리고 전과를 희망하는 재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기획되었으며, '전공 탐색'이라는 이름 아래 학생들이 다양한 학과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행사는 학과별 부스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각 학과(융합전공 포함)는 고유한 코스튬과 체험 활동을 준비하여 부스를 꾸몄으며, 학과 교원 및 선배들이 직접 자리에 참석해 신입생들과 일대일로 만나 전공 및 진로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홈페이지나 학교 안내 책자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생생한 이야기들, 즉 전공의 실제 수업 분위기, 졸업 후 진로, 전과 이후의 경험담 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MAJOR FAIR가 주목받은 이유는, 전공 선택이라는 무거운 과제 앞에 놓인 학생들에게 '탐색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건네는 자리였다는 점입니다. 아직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신입생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 중인 재학생도, 이 행사 안에서 각자의 속도로 전공이라는 세계를 가까이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 현장 분위기

행사장 입구에 들어서기 전, 반가운 얼굴들이 먼저 맞아주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2기 ‘JUNI:ON’ 학생들이 입구에서 직접 팸플릿을 나눠주며 안내를 해주고 있었고, 덕분에 어느 학과 부스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낯선 행사장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는 그 모습이 행사 전부터 따뜻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보다 훨씬 풍성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각 학과의 부스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정성스럽게 꾸며진 채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교수님들과 선배들, 그리고 새내기들의 목소리가 뒤섞이며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코스튬과 체험 활동을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규칙 덕분이었는지 부스마다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했고, 융합전공 부스들도 빠짐없이 자리를 잡고 있어 전통적인 학과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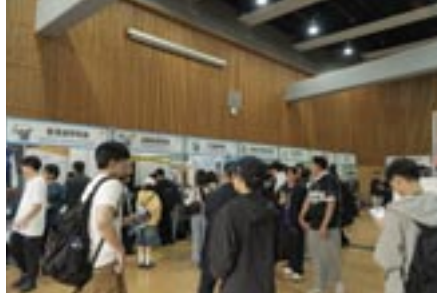
JUNI:ON 서포터즈 안내 현장

부스에서는 전공 및 진로 상담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각 학과 관계자가 직접 커리큘럼과 진로 방향을 설명해 주셨고, 선배들은 실제 수업 경험과 취업 준비 과정을 격의 없이 나눠주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워요. 근데 2학년 때 이 수업 들으면서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선배의 그 한마디가 수백 줄의 학과 소개문보다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 체험 프로그램



Major Fair 현장 1



Major Fair 현장 2



Major Fair 현장 3

부스를 하나씩 돌아보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풍성했습니다. 각 학과는 단순히 전공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학문의 색깔과 분위기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개성 있는 체험 활동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전공 특유의 실험 도구를 직접 만져보거나, 학과 학생들이 수업 중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전시해 둔 부스도 있었습니다. 코스튬을 맞춰 입은 선배들이 직접 나서서 설명해 주는 모습은, 그 학과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자연스럽게 전해주었습니다.

1:1 상담 코너에서는 학과를 고민하는 재학생들이 조심스레 앉아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될까?’ 싶었던 걱정들까지 편하게 꺼낼 수 있는 분위기 덕분에, 전공 선택이라는 과제가 혼자 짊어져야 할 무게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주제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부스 곳곳을 돌던 중,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총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부스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여러 종류의 안경들, 0.1 시력 체험, 반맹, 시야 흐림, 주변 시야 손상 등 총 9가지로,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시각 특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저시력 안경들이었습니다.

9가지 안경을 하나씩 써보는 동안, 거의 말을 잃었습니다. 각각의 안경은 ‘잘 안 보인다’는 공통점을 가졌지만, 그 안에서 경험되는 세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뿌옇고, 어떤 것은 잘려나가고, 어떤 것은 터널처럼 좁았습니다. 시각장애라는 말 뒤에 이렇게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안경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실제 삶을 조금이라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 참여 소감 및 마무리

마지막 안경을 벗었을 때, 눈앞이 갑자기 선명해지는 그 감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함께 체험을 마친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짜 무서웠다”고 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선명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달리, 그것이 매일의 현실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장애 인식 개선이라는 말은 늘 들어온 말이지만, 그 말이 진짜로 몸에 닿은 것은 이 작은 체험 하나 덕분이었습니다.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이 행사의 이름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MAJOR FAIR: [전.탐.시] - 전공 탐색 시간.” 처음에는 단순히 어떤 학과에 갈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전공 탐색을 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멈추게 되었고, 그 짧은 체험이 남긴 것은 어떤 홍보 문구나 진로 상담보다도 오래 마음에 자리할 것 같습니다.

전공을 탐색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탐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전공 선택이라는 질문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저시력 안경을 벗고 나서야 더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공을 탐색하는 시간은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질문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멈추게 되는 그 순간들이 때로는 가장 많은 것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이번 MAJOR FAIR가 그 과정의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날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잠깐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 경험은 앞으로도 한동안 저와 함께 걸어갈 것 같습니다.

학생사례

Student case

자유전공학부 RC공동체 대학생활의 첫 연결고리



이주연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영화방송학과
학생

자유전공학부 RC공동체 소개

대학에 처음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학교는 설렘과 동시에 낯선 공간으로 다가옵니다. 고등학교와는 전혀 다른 수업 방식과 수강 신청 시스템, 스스로 계획해야 하는 대학 생활,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특히 자유전공학부처럼 아직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대학 생활에 대한 고민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전공이 나와 맞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학교생활은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바로 자유전공학부 RC공동체입니다. 자유전공학부 RC공동체는 자유전공학부 신입생 멘티들과 타 학과 멘토가 한 조를 이루어 활동하며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고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고, 대학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단순히 학교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이 아니라, 신입생들이 대학 안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저 역시 신입생 시절 자유전공학부 RC멘토링에 참여하며 대학 생활의 첫 시작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참여 당시의 나와 자유전공학부 RC공동체

저는 당시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했지만, 앞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생길 줄 알았는데, 막상 학교에 와보니 오히려 선택지가 많아 더 고민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수강 신청이나 학교 시설처럼 기본적인 부분도 익숙하지 않았고,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대학 생활에 대한 정보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 서로 물어보면서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저는 '일단 학교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유전공학부 RC공동체의 첫 활동은 3박 4일 동안 진행된 OT였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조 친구들도, 멘토 선배도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어색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함께 생활하고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분위기도 점점 편해졌습니다.

OT에서는 자유전공학부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는지,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른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 설명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고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전공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불안감이나 대학 생활에 대한 막막함을 서로 공유하면서,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학 생활에 대한 부담을 조금씩 줄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전공학부 OT

자유전공학부 RC공동체 활동과 기억에 남는 경험

OT 이후에도 매주 금요일마다 공동체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원들과 함께 학교 시설을 둘러보기도 하고,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학교생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프로그램 활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활동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쉽게 지나쳤을 공간이나 프로그램들도 친구들과 함께 경험하다 보니 학교가 훨씬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멘토 선배와 나눴던 전공 고민 상담입니다. 저는 당시 영화방송학과에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어떤 학과인지 잘 알지 못했고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멘토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관련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멘토 선배는 제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주었고, 단순히 “이 학과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화방송학과 선배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연결해주었습니다. 직접 학과 이야기를 듣고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을 들으면서 전공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당장 답을 정해주기보다는, 학교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며 천천히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덕분에 전공 선택 자체를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대학 생활에 대한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OT에서 처음 만났던 친구들과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이후 대학 생활 속에서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자유전공학부 RC멘토링은 단순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 대학 생활 속 첫 인간관계를 만들어준 계기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 활동 사진 1

▮ 자유전공학부 RC공동체 이후 달라진 점

자유전공학부 RC공동체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입학 초반에는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져야 한다는 부담이 컸고, 먼저 다가가는 것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대학에 오면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귄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처음에는 관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부담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유전공학부 RC공동체 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시간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 억지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함께 활동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자체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학교 프로그램이나 활동에도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고, 학교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유전공학부 RC공동체를 통해 ‘학교 안에서 사람들과 연결되는 경험’을 처음 해봤던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학 생활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입학 초반에는 학교생활이 단순히 수업을 듣고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자유전공학부 RC공동체 이후에는 학교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과 관계들이 대학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활동 사진 2

느낀 점

돌이켜보면 자유전공학부 RC공동체는 단순히 학교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만은 아니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자유전공학부 RC공동체를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었고, 대학 안에서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유전공학부처럼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당장 정답을 알려주는 것보다 학교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스스로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함이 더 컸던 대학 생활이었지만, 자유전공학부 RC공동체를 통해 학교 안에서의 관계와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자유전공학부 RC공동체는 대학 생활의 시작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준 첫 연결고리였고, 대학 안에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준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행사소식

Student case

[대학혁신] 2026학년도 자유전공학부 전공 탐색 박람회 F.L.O.W. (Flexible Learning & Options for the Way)



장유희

대구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담당

배경

1.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전공 선택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의 교육과정 및 학문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
2. 전공별 진출 분야, 취업 사례, 향후 진로 방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3. 복수전공·융합전공 등 다양한 학업 경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생들의 진로 탐색 범위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
4. 학생들의 효과적인 전공 선택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폭넓은 전공 정보 제공이 필요한 상황



행사 개요

1. 학생들의 합리적인 전공 선택과 진로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전공의 교육과정, 연구 분야, 졸업 후 진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2. 학생들의 전공 이해도를 높이고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전공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3.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등 다양한 학사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업 선택 폭을 확대하고자 함
4. 전공별 교수진과 학생 간의 직접적인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학문적 이해 증진 및 진로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5. 희망 전공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완화하여 학생들의 학업 적응력과 대학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행사 내용

1. 행사명: 2026학년도 자유전공학부 전공 탐색 박람회
『F.L.O.W. (Flexible Learning & Options for the Way)』
2. 일 시: 2026. 4. 28. (화) 10:00 ~ 16:00
3. 장 소: 대구대학교 본관 1층 성산라운지
4. 참여자: 자유전공학부 학생 및 책임지도교수, 조교 등 389명

기대 효과

1. 다양한 전공에 대한 실질적 정보 획득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
2. 교수·재학생과의 직접 상담을 통한 전공 이해도 향상
3. 학과별 교육과정과 진로 분야 홍보 효과 증대
4. 중도 이탈 및 전공 변경에 따른 혼란 감소 기대
5. 전공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정보 격차 해소



행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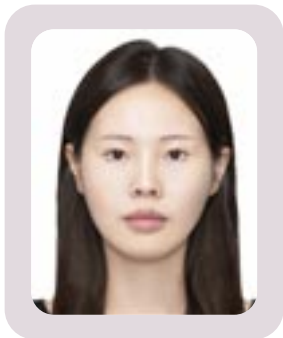


행사 사진

행사소식

Student case

“학생이 만들고 대학이 응답한 혁신, 학생 맞춤형 성장 체계 구축” 조선대학교 ‘2026 대학혁신 DAY’ 성료



서푸름

조선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혁신사업팀
팀원

조선대학교는 지난 4월 29일 재학생들이 대학의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2026 대학혁신 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글로벌대학, 앵커사업단 등 교육부 3대 핵심 사업단이 함께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사업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대학이 추진하는 혁신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성공’을 공통 목표로 교육·연구·비교과 분야 전반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학생들이 대학 내 다양한 지원 체계를 보다 쉽고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총학생회와 학생 모니터링단이 재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행사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주도했으며, 비교과 프로그램 체험 버스, 진로·취업 상담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학생들에게 대학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부스별 참여 인원은 총 3,028명의 학생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프로그램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4.87점이라는 높은 기록을 달성하며 내실 있는 소통의 장으로 평가됐다. 또한 사업 수혜 학생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대폭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조선대학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학생과 대학이 소통하는 혁신 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학생 의견을 적극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연구·비교과 전 영역을 아우르는 학생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선대학교 '2026 대학혁신 DAY' 단체사진



조선대학교 김춘성 총장이 '2026 대학혁신 DAY' 현장 인터뷰 중



체험형 부스 운영 및 학생 참여 프로그램 현장



조선대학교 '2026 대학혁신 DAY' 행사 전경

행사소식

Student case

한국성서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3기 학생 서포터즈 출범식 개최



권순범

한국성서대학교
혁신사업단
팀장

학생 참여를 통한 대학혁신 성과 확산의 새로운 출발

한국성서대학교 혁신사업단은 2026년 4월 24일, 복음관 제1회의실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단 3기 학생 서포터즈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출범식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주요 프로그램과 성과를 학생의 시각에서 알리고, 재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소통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 서포터즈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다양한 교육혁신 프로그램, 학생지원 프로그램, 비교과 활동, 성과 공유 행사 등을 학생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카드뉴스, 숏폼 영상, 뉴스레터, SNS 콘텐츠 등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재학생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3기 학생 서포터즈는 총 5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출범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대학혁신지원사업 소개, 서포터즈 활동 안내, 연간 운영계획 공유 등이 진행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향후 활동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학생의 언어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혁신사업단은 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사업 성과 홍보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학생들이 대학혁신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3기 학생 서포터즈는 정기회의와 콘텐츠 제작 활동을 중심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주요 소식을 교내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은 학생 참여 기반의 성과 확산 체계를 강화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이 학생의 성장과 대학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성서대학교 혁신사업단은 앞으로도 학생과 함께 소통하며 교육혁신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행사소식

Student case

학생 의견을 담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대학혁신지원사업 설명회 및 학생 의견수렴 공청회」개최



이해진

협성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혁신지원팀
팀장

협성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재학생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 중심의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6년 5월 11일 협성대학교 이공관 3층 304호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설명회 및 학생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향후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학생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설명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과 지원 사항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자 하였다.

행사에는 본교 재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주요 과제 및 운영 현황 소개와 함께 학생의 견수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설명회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취·창업 지원, 학생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하였다. 이어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포스트잇 의견 작성과 온라인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학생들은 향후 추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공 관련 기업 연계 인턴십 확대 / 학과별 추천 자격증 및 취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해외 교류 및 해외 탐방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체험 중심 프로그램 확대와 프로그램 참여 이후 진로·취업 등 참여 성과 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시설 및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내 와이파이 환경 개선 / 스터디룸 및 휴게공간 확충 / 도서관 및 화장실 시설 개선 / 강의실 충전 설비 설치 / 체육시설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다. 특히 경영관 2층 강의실과 같은 첨단 강의실 확대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기간 연장 / 참여 정원 확대 / 유료 MBTI 등 자기 이해 프로그램 운영 / 공모전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채플 시간을 활용한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 강화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이번 행사 만족도 조사에서는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한 학생 의견이 실제 사업 운영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는 응답도 이어졌다.

협성대학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학생 의견을 향후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생 참여 기반의 수요자 중심 혁신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포터즈 발대식

Supporters Inauguration Ceremony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이주열 회장 개회사



서포터즈 소개와 활동 안내



서포터즈 임명장 수여



서포터즈 단체사진

2026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 선발소감 및 각자



수도권



경희대학교 안수민

안녕하십니까, 2026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 안수민입니다.

전국 대학생들을 위한 뜻깊은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설레고 기쁩니다. 입학 후 교내 교육혁신사업단 학생기획단을 포함한 다양한 홍보대사 활동 경험을 통해, 대상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매력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꾸준히 고민해 왔습니다.

이번 서포터즈 활동에서는 각기 다른 학교와 전공의 학생들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혁신 사업이 학생들의 진로와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송유솔

안녕하세요! 2026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 수도권 팀장을 맡은 송유솔입니다.

우연히 학교 포털에서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2026년도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설렙니다! 다양한 활동을 좋은 팀원들과 함께 시작부터 끝까지 해나갈 생각에 벌써 기대가 됩니다. 저는 학우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더 많은 학우분들이 알고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할 때 가졌던 다짐을 잃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며, 앞으로 약 5개월 동안 다양한 경험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성장하는 서포터즈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단국대학교 이수빈

안녕하세요! 2026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로 선발된 단국대학교 이수빈입니다.

그동안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 스스로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전국 단위로 사업을 홍보하는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되어서 엄청 기쁘고 영광이에요! 단국대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만큼, 확실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대학생 학우분들이 이 유익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의 활동에서는 제 또래의 시선에서 친근하고 톡톡 튀는 콘텐츠를 기획해 보겠습니다. 처음 지원서를 쓸 때의 설렘과 열정을 잊지 않고, 다른 학교 서포터즈 분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성실하게 활동하겠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함께 더 넓은 세상을 배우며 성장할 올 한 해가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단국대학교 임지원

안녕하세요! 2026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 임지원입니다. 이번 활동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평소 대학혁신지원사업이 학생들의 성장과 대학 발전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가치를 직접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되어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다양한 대학의 혁신 사례와 성과를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며,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또한 구성원들과 협력하며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널리 확산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맡은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도권



서울신학대학교 최지혜

2026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로 선발되어 매우 기쁘고 사한 마음입니다. 평소 대학혁신지원사업이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대학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직접 사업을 알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성과를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쉽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학의 서포터즈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활동하며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_♥



숙명여자대학교 고수현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이 학생들의 교육·진로·창업·연구 활동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직접 취재하고 콘텐츠로 풀어내고 싶습니다.

특히 대학생의 시선에서 공감할 수 있는 카드뉴스, 숏폼 영상, 현장 스케치 콘텐츠를 제작하여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사업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겠습니다.

담당 학교의 우수 사례와 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발굴하여 더 많은 대학 구성원이 사업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널리 알리는 적극적인 서포터즈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영인대학교 임민지

2026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로 선발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대학 내 여러 센터의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생 지원 사업을 접하며 콘텐츠 기획 및 홍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와 가치를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학생의 시선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내고,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학생과 사업을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널리 알리는 서포터즈가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김고은

안녕하십니까. 2026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된 김고은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정해진 길만 걸어간던 조용한 학생이었던 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인 교내 PBL 활동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융합전공 제도를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진로를 개척해나가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변화는 대학 교육 혁신이 학생의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포터즈 활동 기간 동안 저처럼 두려움을 딛고 스스로 혁신을 이룩하고 있는 학우들의 숨겨진 원석 같은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보다 더 많은 학생이 혁신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자신만의 다학제적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끄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경북·강원권



계명대학교 김바다

대구·경북·강원권에서 활동하게 된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 김바다입니다. 2026년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대학의 긍정적인 변화와 혁신적인 성과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고, 이를 많은 학우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일반 대학생들과 혁신지원사업을 긴밀하게 연결 짓는 '소통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습니다.

팀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고, 참여를 독려하는 생생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성실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임하며 사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최라윤

안녕하세요, 2026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로 선발된 대구가톨릭대학교 광고홍보전공 최라윤입니다.

전국 단위의 서포터즈로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그만큼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광고홍보를 공부하며, 한 가지 믿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도 언어가 되지 않으면 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이 각 캠퍼스에서 만들어온 진짜 변화들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읽히는 콘텐츠로 풀어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강원권의 혁신 현장을 발로 뛰며 기록하고, 그 이야기를 더 많은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경북·강원권



영남대학교 박지현

안녕하세요. 2026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 대구·경북·강원권을 맡게 된 박지현입니다.

서포터즈에 선발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 서포터즈 활동인 만큼 설렘이 앞서지만, 한편으로는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 역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다양한 성과와 현장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생생하게 전달하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학의 우수 사례와 학생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취재하며, 많은 이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맡은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충청권



대전대학교 김민서

안녕하세요.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충청권 서포터즈 김민서입니다.

먼저 충청권역을 대표하여 활동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과 대학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서포터즈가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교내의 사업단에서 쌓아온 현장 홍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가치와 성과를 더욱 널리 알리겠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 인터뷰와 브이로그 등 생동감이 담긴 콘텐츠를 통해 학우분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기획하겠습니다.

활동하는 임기 동안 매 순간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선보일 홍보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심지윤

2026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로 함께하게 되어 정말 설레고 기쁩니다. 무엇보다 제가 담당하게 될 여러 대학의 빛나는 순간들을 직접 마주하고, 그 안에 담긴 혁신의 가치를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대됩니다.

모든 학교가 가진 고유한 색깔과 학생들의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들이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변화를 따뜻한 시선으로 기록하고 싶습니다! 여러 학교를 책임지는 만큼, 그만큼 더 많이 발로 뛰며 각 학교의 학우들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얼마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고 전하겠습니다.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즐겁게, 또 열정적으로 움직이며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와 함께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남대학교 김이정

안녕하세요. 충청권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된 김이정입니다. 교내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2026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에 관심이 생겨 지원하게 되었으며 감사하게도 선발이 되었습니다. 교내에 프로그램이 많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주관 하는 사업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주관이라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타 대학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높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교육혁신을 이끌어내는 사업으로 참여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사업단의 프로그램에 높은 참여율을 달성하도록 각오를 가지고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호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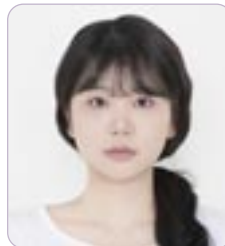
원광대학교 김예원

안녕하세요. 2026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호남권 서포터즈로 선발된 원광대학교 김예원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전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늘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가치와 성과를 널리 알리는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기도 하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저는 호남권 서포터즈의 팀장이라는 소중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팀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시너지를 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태도와 꼼꼼한 자세로 활동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주요 사업과 성과가 더욱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파이팅!



전주대학교 신보민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공연예술학과 신보민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고민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변화들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넘어, 변화의 순간에 의미를 더하는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작은 이야기 하나에도 진심을 담고, 한 장의 사진과 한 편의 콘텐츠에도 가치를 담아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순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기에, 그 연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모든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배우고, 기록하고, 전하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서포터즈가 되겠습니다.

호남권



호원대학교 전 지 원

안녕하세요. 2026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로 함께하게 된 전지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서툰 부분도 있겠지만, 성실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가치와 이야기를 저만의 시각으로 담아내 찬란하게 빛날 청년들의 성장, 교육의 발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어쩌면 가장 힘들 수도 가장 행복할 수도 있는 청년들의 시간이 되도록 앞으로의 나날들이 깊게 뿌리내리길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부산·울산·경남권



부산외국어대학교 민 수 정

안녕하세요! 2026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로 선발된 부산외국어대학교 민수정입니다. 염원하던 서포터즈 활동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대학 생활의 첫걸음을 대학혁신지원사업과 함께 내딛게 되어 무척 설레고 기쁩니다.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은 학생들이 위대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이를 알지 못한다면 그 가치가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많은 학생이 정보의 문턱을 넘지 못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그러한 정보적 간극을 메우는 '가교'가 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대학의 혁신을 체감하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울산·경남권



울산대학교 김 예 지

2026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서포터즈로 선발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다양한 콘텐츠 제작 활동과 SNS 운영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번 활동을 통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시선에서 프로그램의 실제 경험과 장점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 서포터즈들과의 교류와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과 역량을 배우며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맡은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의미 있는 서포터즈 활동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울산대학교 이 지 현

이번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서포터즈에 함께하게 되어, 앞으로의 활동들이 기대됩니다.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다른 학교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 많은 활동들을 같이 소통하며 재미있게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 숏폼 콘텐츠 제작을 해보고 싶고, 게시하게 된다면 알고리즘 등으로 많은 관심을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포터즈 활동이 마무리될 때, 저의 성장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보겠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소식지 제29호 게재 원고 모집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는
대학혁신지원사업소식지 통권 제29호(8월호)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소식지 콘텐츠

대분류	주제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사례	대학혁신지원사업 주요 성과사례
	대학교육혁신 사례
	기타(연구·교육·사회·공헌 분야의 대학 소식)
기고문	미래 고등교육혁신정책 어젠다(agenda)
	환경불확실성 시대(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의 대학교육 혁신전략
	국가발전(국가균형발전)과 대학의 역할
	기타(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 관련 주제)
행사소식	각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주요 행사
	기타 각 대학의 주요 행사 안내

※ 게재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원고의 경우 게재가 불가할 수 있음

원고응모대상

▶ 대학혁신지원사업 141개 회원교의 교원 및 직원, 학생

원 고 분 량

▶ A4 2매 이내로 제한

행 정 사 항

1. 제출자료 : 원고 및 이미지 자료(원고 제출자의 증명 사진 및 자료 사진 원본)
2. 제출기한 : 2026.7.17.(금) 17:00까지
3. 제출방법 : 원고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4. 제 출 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사무국 (이메일 : uispc0624@gmail.com)
5. 유의사항 : 해당 원고 공모 및 협조 요청은 희망자(대학)에 한하며,
제출 원고가 많을 경우 주제에 따라 게재여부 및 순서 등 조정 가능
6. 문 의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사무국 ☎ 055) 320-3216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 (50834)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PRIME의생명공학관 106호
TEL. 055) 320-3215 FAX. 055) 320-3207 E-mail. uispc0624@gmail.com